



時計塔

SIGETOP



2006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3권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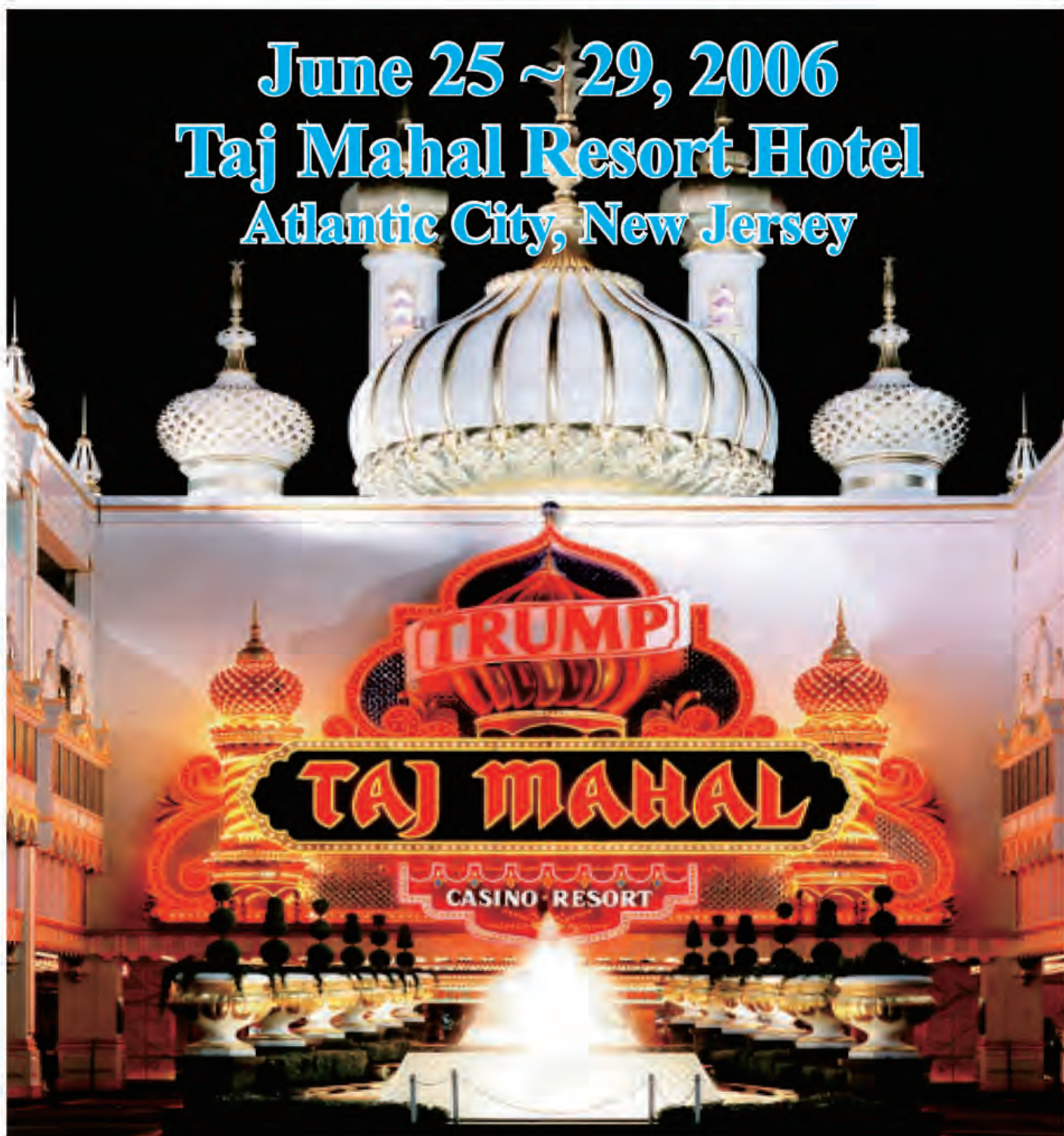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崔 準 熙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宋 寬 鎬

The 23rd Annual Summer Convention



June 25 ~ 29, 2006
Taj Mahal Resort Hotel
Atlantic City, New Jersey

친애하는 동문 그리고 가족분들 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회장단이 임무를 인계 받은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만
으로 동창회의 큰 행사인 Summer Convention을 치름으로서 저희 회장단도 맡겨
주신 임무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낍니다. 그 동안 지루했
던 그리고 번덕스러웠던 겨울이 지나고 희망에 부푸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Summer Convention이 6월 25일에 Atlantic City, 뉴저지에 있는 Taj Mahal Resort
Hotel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동창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뉴욕에서 열린 Annual Ball에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동문
들이 참석하셔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동문들이 도와주시므로서
성공적인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틀란틱 시티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싶이 다양한 Activities 가 있어 가족들
과 함께 Mid Summer Vacation을 보내시기에 적합한 곳으로 생각되어 택한 장소
입니다. 부디 오셔서 Beach, Boardwalk, Show and Casino 등등을 즐겨주시기 바랍
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예년 Keynote Speaker 강수상(53)동문의 'Stem Cell' 왕규창

(79) 본국 의대학장님의 '한국의학의 장래' 등이 Scientific Session에 포함되었고
민경탁(65)동문의 Computer Class, 이순영박사의 Video Art, 그리고 한국민요, 서예
등등이 non-CME session 에 들어있어 예년에 비해 이색적이고 더욱 흥미있는 프
로그램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Scientific session에는 많은 동문들의 자제분들이 Speaker로서 참여하게 되
어 있어 이민 일세 저희들의 노력의 결실을 보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
런 이제 자제들에게 고무의 박수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 회장단이 출범한 선박은 여러 준비위원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동창여러분들의 후원으로 풍량을 헤치고 여기까지 순항해 왔습니다. 이제 2개월
만 지나면 Atlantic City, NJ 에 무사히 Docking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
항하기 위해서는 이번 Convention 에 많은 승객이 필요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
시오.

그러면 다시한번 6월 25일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회 장 최 준 희
하계학술대회 준비위원장 권 정 덕

2005-2006 제2차 이사회 초록



일자: 2006년 3월 4일(토) 6:30 PM
장소: Palisadium, Cliffside Park, NJ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이운순(58)
김병석(59), 추재욱(63), 권정덕(64)
오태희(64), 최준희(64), 이명희(66)
최영자(66), 김홍서(69), 오용호(72)
서인석(73), 심인보(83) 이상 14명
Proxy:
박호현(58), 신상균(58), 한성업(59)
김문겸(60), 서영석(61), 이재승(61)
정정수(62), 조명호(62), 임춘수(63)
조한원(63), 김태환(64), 송관호(64)
조동준(64), 민경탁(65), 이한중(65)
채무원(65), 이종현(66), 최순채(66)
이민우(67), 이태석(67), 엄규동(69)
노재홍(71), 오동환(71), 문대욱(73)
이상 24명
Guest: 백승석

1. 최준희 회장, 서인석 총무의 심원 보고(총 49명 중 14명 참석, 24명 proxy)를 받고 오후 6시45분 개회를 선언함.
2. 2005-2006년 제 1차 이사회(2005년9월 3일)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제청으로 통과됨.
3. 회장 보고(최준희 회장)
 - 2005년 11월 19일 있었던 annual ball을 성공리에 마쳤음. 많은 동문 및 가족, 외부 인사들이 참석했음.
 -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summer convention에 권정덕(64) 위원장과 최영자(66) 학술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아직 완성은 안되었지만 동창회 web site가 가동중임. 많은 이용을 바람.
4. 총무 보고(서인석 총무)
 - 2월말 현재 500여명이 동창회비를 냈. 주소변경 용지 발송 시 회장 명의

의 권고 편지를 첨부할 예정임.

- Directory는 summer convention에 맞춰 발행할 예정임. Fund raising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sponsorship에 동문들은 물론 주위의 제약회사 등 vendor들의 참가를 종용함.
- 5. 재무 보고(심인보 재무)
 - 지난 annual ball에 수입 \$27,195 (\$6,335 donation 포함.), 지출 \$23,515로 \$3,680 fund raising을 하여 general fund로 이월함.
 - 3월3일 현재 general fund에 \$42,666 잔고가 남아있음 (green project fund 포함).
 - 1월 1일부터 사무실 월세 \$950이 절약되고 있음.
- 6. Committee Reports
 - a. Finance(최순채 위원장- 서면보고)
 - 지난 해 IRS audit 후 KAMA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1) 장학금 수혜자들로 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됨.
 - 지난 5년간 수혜자 명단을 새로 작성함.
 - 2) 장학금은 반드시 교육과 관련되어 지불 해야 됨.
 - 3) \$600 이상 지출시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됨.
 - Medical journal에 상용 광고시 광고금액을 표시 할수 없음, 이 조항에 대해 박성남 CPA에게도 조회 했음. 권정덕 위원장이 이 조항에 대해 병원 변호사에게 조회하여 다음 회의때 보고 할 예정임.
 - b. Scholarship (문대욱 위원장 - 서면보고)
 - 오태희(62) 동문 자제인 Eugene 오가 제공하는 'SNUCMAA Dr. Jason Taeyo Ohr 1962 Scholarship'과 'SNUCMAA Dr. Geun-Eun Kim 1965 Scholarship'의 선정을 의뢰하는 공문을 김석

- 현 본교 학생 부학장에게 발송하였음.
- 1월 1일자 시계탑에 장학생 선발 공고를 냈음. 5월중 선발 후 summer convention 에서 수여 할 예정임.
- c. Fund Raising (추재욱 위원장)
 - Annual ball에 도움을 주신 동문들께 감사를 드리며 directory 및 summer convention을 위한 fund raising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d.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 위원장)
 - 2005년도 9.4%, 2006년도 첫 두 달에 4.6%의 gain이 있었음. 현재 bond 28%, stock 72%의 비율로 \$442,664 (이내월fund \$22,125 포함)을 확보하고 있음. 금년 8월 이전에 \$500,0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 Publication (김병석 위원장)
 - 최신 호 (1월1일자)에는 오자가 거의 없음.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겠음.
 - 원고 부족이 큰 문제임.
- f. Advisory & Exchange (이만택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g. Research & Fellowship (오태희 위원장)
 - 지난 9월에 염선영 동문(2002)을 단독 추천, 최준희 회장께서 모교 동창회에 우송했음에도 연구 기금을 받지 못하게 됨). IMF 후 합촌 기금을 모교 동창회에 전달 후, 매년 한 명씩 연구 기금을 받아 왔던 바, 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것을 건의함.
- h. By-Law (노용면 위원장)
 - 이사회 및 대의원회 정족수를 1/3에서 1/4로 바꾸자는 안이 지난 번 대의원에서 제시되어 By-Law committee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안건으로 제출됨. 신중안 토의 후 투표에 부쳐 찬성 5, 반대 7으로 부결 됨. 1/3을 그대로 두고 회의 몇 주전부터 회장단 및 사무장 Mrs. Kim의 노력으로 의결에 충족한 proxy를 확보 할 것을 건의 함.
- i. Nominating (이한중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j. Green Project (서인석 위원장)
 - 모교 내 동아리회 모임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음.
 - 동아리회가 형성되면 모든 연락 및 결정 사항의 주축으로 이용할 예정

- 임.
- k. Silver Project (민경탁 위원장 - 서면보고)
 - 더욱 더 많은 동창들이 retire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동창회 사업이 부족 함. 현재로는 시계탑 이외에 연락 도구가 없음. 새로 마련된 web site를 적극 이용할 예정임.
 - 현재 500여명의 이메일 주소가 확보 됨.
 - 지역별 강의 및 summer convention을 이용한 강의를 통해 인터넷 보급에 힘을 예정임. Summer convention 중 이틀에 걸쳐 workshop을 가질 예정.
 - Internet skil에 대한 survey 결과를 SNUAA web site에 발표 할 예정임.
- l. Summer Convention (권정덕 위원장)
 - 최영자(66) 학술위원장과 Mrs. 최준희의 노고에 특별 감사를 드림.
 -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음.
- m. Scientific (최영자 위원장)
 - Scientific 및 spouse program의 대부분의 연사 및 제목이 결정 되었음.
- 7. New Business
 - 오용호 대뉴욕지부 회장이 4월 22일 Bergen Hill CC에서 있을 골프 outing (김재남 배) 에 많은 참석을 부탁함.
 - Central office를 사무장 Mrs. Kim 자택으로 이전한 것을 보고 함. 매달 \$950의 rent비가 절약 됨. Utility 비용으로 매달 \$70 보조를 결정함. Mrs. Kim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함.
 - Office management committee를 standing committee로 승격하자는 안에 진지한 토의 후 투표에 부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됨. By-law committee 에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6월 대의원회 에 제출 할 예정임.
 -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는 안건이 제출되어 토의 끝에 6월 대의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함.
 - 폐회 동의, 제청으로 오후 9시 30분에 폐회 함. 다음 회의는 차기 회장단이 결정. 공고할 예정임.

기록 : 서인석 (73) 총무

제 2차 대의원회 공고

2005-2006년도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셔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학년대표, 지부회장, 이사, 위원장 및 임원
일 시: 2006년 6월 25일 오후 4시
장 소: Taj Mahal, Atlantic City, NJ

회장 최준희(64)

동문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동형근 회장단과 이성근(66)동문의 노력으로 지난 2001년에 산뜻하면서도 내용도 충실한 미주 동창회 주소록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문들의 주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e-mail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첨가함으로써 동문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도우기 위해 새로운 directory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월 1일을 기해 오픈된(계속 보완될 것임) web site(suncmaa.org)에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Fund raising을 목적으로 주소록 뒷부분에 동문들과 sponsor들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으니, 동문들의 참여는 물론 주위에 있는 기업체(제약회사, 약방, CPA, CFA, Real Estates, 보험회사, 여행사 등등)들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Full Page(Gold)\$3,000	Full Page(Silver)\$2,000
Full Page(Plain)\$1,000	Half Page(Plain)\$500
Quarter Page \$250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CMAA /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
snuclmaa@yahoo.com

Fund raising committee chairman 추재욱 President 최준희

동문동정

유태준(59) - 테네시 주립대학 내과 교수로 재직중인 유 동문이 지난해 10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에서 2005년도 '일천상'을 받았다. 일천상은 한국분자생물학 연구의 선구자인 이기영 고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념하여 지난 1994년 제정되었으며, 2년에 한번씩 한국인이며 외국에서 분자 및 세포 생물 분야를 연구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과학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2005년 수상자인 유태준 동문은 1959년 모교를 졸업했으며, 미국에 유학하여 1963년 버클리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은 뒤 앨버스 재향군인병원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분과장, 테네시대학 의과학센터 내과, 미생물학 및 번역학 교수, 알레르기 및 면역학 분과장 등을 맡으며, 연구에 정진해 왔다.

김주평(68) -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정형외과의로 일하고 있는 김동문은 3년전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인선교사와 인연을 맺은 뒤 '세계 범의료선교회'라는 자선 단체를 만들어 베트남 사이공 외곽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부족한 시설을 건립해 주는 등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일과 사이공 동남쪽 봉파우 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주기로 하고 현지 바리아 봉파우성 관리자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마치는 등 베트남 의료지원 사업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김동문의 열정을 보고 미국내 자선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결과이며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독지가들이 후원하는 사람의 선교회와 비라카미 선교회의 후원도 큰 힘이 되었다.

김주평 동문은 "아직 한국에도 도움을 요하는 곳이 많지만 베트남의 경우 아직 외국인 선교사들이 과거 우리나라를 돕던 시절과 비슷하다"며, "한국인으로서 과거 우리가 외국의 도움을 받았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마음으로 베트남 의료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힘입는 데까지 돕고 싶다"는 의욕을 밝혔다.

이철재(72) - 이철재 동문의 임교부인인 정희현(72)동문의 개인전 'Ravello'가 맨하탄에 있는 Phoenix Gallery에서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민인기(73) - 민인기 동문의 부인 김지연씨가 소설 창작집 [들리는 소리]를 발간했다. 오래전 장편소설 <바람에 뜨는 별>로 한국 문단에 데뷔했던 미세스 민이 미국땅에서 창작 소설 집을 발간하기까지는 삼십 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소설가 전삼국 씨는 "모국어에 대한 작가의 애착이 어땠는가를 보여준다면 흘러가 버린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엿보이는 가운데 소설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한다는 말로 추천하고 있다." 6편의 단편이 실린 [들리는 소리]는 출판사 [문학사상]에서 출간됐다. 저자 김지연씨는 서문에서 이 작품을 어머니과 요셉과 그리고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면서 그리운 모국어로 혼자서 글을 쓰는 이름없는 작가들에게 드린다고 했다.



신임회장 추천위원 위촉

최준희 동창회장은 다음과 같이 동창회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한중(65, 직전회장, 미시간)위원장, 이재승(61, 전회장, 메릴랜드), 정점수(62, 전회장, 펜실베니아), 한기현(63, 전회장, 뉴저지), 송관호(64, 전회장, 뉴욕), 임응규(69, 앞스테인트 뉴욕지부장), 이성춘(70, 캘리포니아 지부장), 김종영(72, 텍사스 휴스턴지부장). 임원추천위원들은 2007-2008년도 회장과 2006년도 6월 30일로 3년 임기를 마치는 10명의 새이사를 선출하여 금년 6월 25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투표하게 된다.

64년 동기소식 - 멕시코로 7일간 동계여행

64년 동기내외분들 거의 40명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멕시코의 Puerto Vallarta에서 겨울철 동기동창 휴가를 함께 즐겼다. 떠나기 전날부터의 부푼 마음은 어린시절 소풍가진 전야에 잠 못 이루듯 가벼운 긴장과 들뜬 기분이었다. 이번 동기모임에는 66년의 민발식 동문부부와 69년의 김윤성동문부부도 참여하게 되어서 동기뿐 아니라 후배와도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미 동부에서 떠난 친구들에게 장장 6시간에 걸친 비행기 여행이었는데 영화도 보고 낮잠도 억지로 자면서 도착한 그곳의 비행장은 손님을 유치하려는 택시, 합승, 호텔 안내자들이 너무나 와글거려 거의 무질서의 아수라장 같았다. 물론 멕시코이기에 미국같은 질서있는 공항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택시, 합승의 승차료는 bargain에 따라 차이가 심했는데 우리 그룹의 권정덕 동문의 원숙한 수완(?) 덕분에 각자가 부담한 금액은 꽤 험악이었다. 처음에 느낀것은 혼돈하고 습기있는 전형적인 아열대의 기후였는데 그 기후가 우리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여주었다. 호텔은 비교적 깨끗하고 설비도 그런데로 만족할 만했고 종업원도 친절했다. 음식의 질과 양도 흠족스러운 편이었는데 체중조절을 생각하면서도 우선 입맛을 즐겼다. 우리 일행은 거의 매일 골프를 즐겼는데 골프코스도 상위권에 속할정도였다. 그런데 이 골프도 제값으로 치려면 꽤 비싼편이어서 여러 resort facility에서 초청하는 sales promotion program에 여러 동기가 희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저렇게 매일 negotiation함으로써 비싼 정가를 내지않고 치는 흐뭇한 느낌도 골프를 즐기는 낙에 보탬이 되었다. 또 최준희 동문은 홀-인-원-을 하는 묘기도 보였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베케이슨 패키지라서 어떻게 한턱을 내야할까하는 고민(?)까지 생겼다. 몇몇 부부들은 목숨(?)을 걸고 canopy (높은 나무와 나무사이를 타잔처럼 줄타는 운동)를 즐겼던 것도 아슬아슬한 모험이었다. 또 몇몇 친구들은 바다낚시에서 잡은 물고기를 튀겨와서 저녁전에 간식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물고기를 직접 잡은것인지 혹은 사서 튀겨왔는지는 알쏭달쏭하였다.

졸업한지 42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기들의 모임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할말이 많은지 웃음의 꽃이 끝없이 피고 밤이 늦는줄 몰랐다. 지난 1년동안 간사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이흥표 동문께 감사드리며, 이광신 동문이 인수받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즐거운 시간도 훌쩍 지난서 7일간의 동기여행도 막을 내리고 석별의 아쉬움을 느끼며 6월 25일 하계학술대회때 재회할 것을 약속하며 각자 비행장으로 귀가길에 올랐다.

모교소식

모교 왕규창 학장 재선임



모교 왕규창 학장(소아신경외과)이 제28대 학장으로 연임됐다. 모교는 지난 2월 3일 왕규창 학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 왕규창 학장을 재선임했다.

재선임 투표는 449명의 교수중 200명이 참가해 64.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245표(84.5%)을 받아 재선임을 받았다. 왕학장은 서울대 본교의 재 임명절차를 거쳐 4월 부터 2년간 제 28대 학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왕규창 학장은 2년 전 학장에 취임한 이래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임상외사 외의 사회 각 분야에 진출,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강조해 왔으며, 차분하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원만한 타협력을 발휘해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의 수완을 발휘했다.

모교,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의예과 -전문대학원 병행'

모교도 부분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 모교는 "정원의 50%를 현행 의예과제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를 의학전문대학원 제(4+4제)로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정원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현행 의예과제와 고교 졸업 후 학사과정에 진학시 의학교육을 보장 받는 '보장형 학사+4제' 중 택일하여 기존의 의학전문대학원제(경쟁형 4+4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모교는 "학생 정원의 100%를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쟁형 4+4제의 경우, 학생들의 고령화, 학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약자, 군 복무 의무자들이 받은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교육부의 유연한 새로운 제안을 환영하며 이에 동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대는 "시범사업 종료 후인 2010년 이후에는 6년제 학생에게도 학석사통합과정 형태로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한다"며 "동일 대학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병행하여 존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는 "만일 2010년 이후에 6년제 학생에 대해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못한다면, 다시 100%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반강제로 '보장형 학사+4제'를 택해야 한다"며 후자의 경우 많은 학생들에 불필요한 교육연한 연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교 졸업생 221명 동창회원으로 입회

모교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겸한 신입동창회원 환영행사가 지난 2월 27일 모교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왕규창 학장은 어려운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 문을 나서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 모교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모교동창회 하권익 회장은 신입회원을 맞는 환영사에서 "최고의 실력과 자질을 갖춘 221명의 후배를 동창회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신입 동창 여러분도 이제 동창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젊음과 패기로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하권익 회장은 또 선배 동창들이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의료전문가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후배들도 선배를 능가하는 자질과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태준(50) 전동창회장 국제협력특별공로상 수상

전세계의사회장을 역임한 문태준(50)동문이 '대한의사협회·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문동문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의사회장을 맡아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된 것이다. 문동문은 필라델피아 토마스 제퍼슨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한국 연세대의대 신경외과를 발전시키고 모사부장관, 국회의원, 한국의사회장, 서울의대동창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의료계의 거목이다.

인제대학교 이사장 백낙환(51)동문 '장학기부 공로 부조상(浮彫像)' 제작

서울의대가 우수한 의학과를 양성하기 위해 1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백낙환 동문의 공로를 기려 서울의대 장학기부 기념 부조상을 제작했다. 지난 2월 21일(화) 서울의대 부조 제작식을 열고 백낙환 동문의 발전기금 쾌척에 대한 뜻을 기렸으며, 제작된 부조상은 서울의대 본관에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백낙환 동문은 서울의대의 장학재단 최초 설립자이자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하는 등 지난 94년 부터 현재까지 약 1억7백만원의 서울의대에 기부해 왔다. 서울의대는 발전기금 기여자들에게 예우를 표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기여자들에게 부조상을 제작해 영구보존하고 있으며, 백낙환 동문의 부조상은 44번째 부조상으로 기록된다.

BOOK SIGN회

그 동안 많은 동문들과 부인들의 수필집 등을 비롯한 저서들이 발간되었으나 이를 동문들에게 알릴 적절한 기회가 없어 이번 하계 학술대회 기간중 북 사인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서 서명회에 참가을 원하시는 저자들은 저서의 제목을 동창회 본부 혹은 출판위원장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위원장 김 병 석 (59)

The 23rd Annual Summer Convention

Scientific Session (CME Session)

SUNDAY JUNE 25, 2006

All day Arrival and Registration
5:30pm-8:30pm Welcome Reception (Open to all attendees)
8:00pm Ribbon Cutting Ceremony

MONDAY JUNE 26, 2006

6:30am Registration and Continental Breakfast
7:00am Opening Remarks
President, John J. Choi, M.D.
Convention Chair, Stephan C. Kwon, M.D.
CME/Scientific Chair, Young J. Choi, M.D.

Update and New Perspectives of Health Care and Medical Research

Moderator: **Young J. Choi, M.D.**

7:20-8:20am 1) Possible major changes in medi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2) Future perspectives of medical research in Korea.
Kyu-Chang Wahg, M.D. (79)
8:20-9:20am Cloned embryo-derived stem cells and regeneration medicine.
Key Note Speaker: Soo Sang Kang, M.D. (53)
9:20-9:30am Coffee Break
9:30-10:15am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hospital in Korea.
Kwon Ick Ha, M.D.(63)
10:15-10:45am How is New Orleans medical community surviving from Hurricane Katrina?
Young Sung Choi, M.D. (61)
10:45-11:30am The present and future state of medicine in North Korea.
Sai Rok Park, M.D. (63)
11:30-11:45am Question and Panel discussion
11:45am Adjourn

Tuesday JUNE 27, 2006

6:30am Registration and Continental Breakfast

Medical care for aging

Moderator: **Tae J. Yoo, M.D.**

7:00-7:30am Molecular modulation of aging
Sang Chul Park, M.D. (73)
7:30-8:00am Cause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 aging skin.
Francis Chaepoong Lee, M.D. (64)
8:00-8:30am Restoration of hearing loss by cellular gene therapy and DNA vaccine.
Tae Joon Yoo, M.D. (59)
8:30-9:00am Advancements in coronary and atherosclerosis imaging.
Jong Ho Kim, M.D.(86)
9:00-9:30am How to treat low back pain: Degenerative spine disorders.
2004 Ham Choon Alumni Award Francis Y. Lee, M.D. (86)
9:30-9:40am Coffee Break
9:40-10:10am Neurosurgical management of stroke
Louis Kim, M.D.
10:10-10:40am Facial soft tissue reconstruction
John S. Rhee, M.D.
10:40-11:10am Total hip replacement for osteoarthritis.
Patrick Yoon, M.D.
11:10-11:40am Common ophthalmic problems in the elderly people.
David Rho, M.D.
11:40-11:50am Question and Panel Discussion
11:50am Adjourn

WEDNESDAY JUNE 28, 2006

6:30am Registration and Continental Breakfast

Advancements in Medical management and technology

Moderator: **Raymond Kim, M.D.**

7:00-7:30am Gastricstromal cell tumor(GIST)
Kyung W. Min, M.D. (62)
7:30-8:00am Robotics in Urology
David Lee, M.D.
8:00-8:30am Latest trend in dentistry care
Magaret Park, D.M.D.
8:30-9:00am Bipolar disorder and its atypical manifestation
Christopher Chung, M.D. (72)
9:00-9:00am Coffee Break
9:00-9:40am Neurobiology and spiritual aspect of sleep
Sung H. Bae, M.D. (71)
9:40-10:10am The current trends in the management of colon cancer
James J. Lee, M.D., Ph.D.
10:10-10:40am Recent advances in the treatment of lung cancer
Christine L. Hann, M.D.
10:40-11:10am Management of HBV infected patients:
pre-and post-transplantation and donor recruitment policy
Raymond Kim, M.D. (86)
11:10-11:40am Preven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early intervention with antiviral therapy
Hie Won Hann, M.D. (61)
11:40-11:50am Question and Panel Discussion
11:50am Adjourn

Program Highlights

SUNDAY JUNE 25, 2006

All day arrival and Registration
5:30-8:30pm Welcome Reception (Open to all Attendees)

MONDAY JUNE 26, 2006

6:30-11:45am Continental Breakfast, Scientific Session
8:00-11:00am Non-CME session
11:45am Golf and other Activities

TUESDAY JUNE 27, 2006

6:30-11:45am Continental Breakfast, Scientific Session
8:00-11:00am Non-CME session
11:50am Golf and other Activities

WEDNESDAY JUNE 28, 2006

6:30-11:45am Continental Breakfast, Scientific Session
8:00-11:00am Non-CME session
11:50am Golf and other Activities

Non-CME Session

MONDAY JUNE 26, 2006

Moderator: Christopher Chung, M.D.

8:00-9:00am Survival of the Prettiest: A practical guide to the most effective procedures and costmeceuticals for the aging skin
Francis Chaepoong Lee, M.D. (64)
9:00-10:00am Chinese and Korean Calligraphy: Demonstration and practice
Christopher Chung, M.D. (72)
10:00-11:00am All things about wine
Woong Man Lee, M.D. (64)
1:00-4:00pm Computer class
Kyung Tak Minn, M.D. (65) and staff

Class Reunion Night

Speaker's Night

TUESDAY JUNE 27, 2006

Moderator: Edward Chung, M.D.

8:00-8:30am Heart disease: What should I know?
Edward Chung, M.D. (57)
8:30-9:30am CPR
Mrs. In Suk Seo (73)
9:30-10:00am How to write
Tae H. Oh, M.D. (64)
10:00-10:30am Introduction to bird watching
Yong Sung Choi, M.D. (61)
10:30-11:30am Long term health care
Kyle Chang
1:00-4:00pm Computer class
Kyung Tak Minn, M.D. (65) and staff
7:00pm Talent show - Class competition - Tierra Ballroom

WEDNESDAY JUNE 28, 2006

Moderator: Myung H. Lee, M.D.

8:00-9:00am Smart portfolio for the new 21st-century and financial health and retirement
Mr. John Baek
9:00-10:00am Korean lyric song
Mrs. Myung H. Lee (66)
10:00-11:00am Paik Nam June, The "Father of Video Art" the World
Sun-Young Won Lee, Ph.D. (67)
1:00-4:00pm Computer class
Kyung Tak Minn, M.D. (65) and staff
7:00pm Grand banquet dinner/dance - Tierra Ballroom

Course Description & Objectives

The scientific and education meeting i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and insight into major developments in basic and clinical medicine across a broad spectrum of topics. All the selected presenters will have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ir fields and outstanding academic and professional credentials. The program format will encompass formal lectures, informal panel discussions and presentation of selected topics.

This year we are extremely interested in inviting not only our alumni members but also our sons and daughters, who will share their expertise and demonstrate contribution in medicine to the US. This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enhance relationships among our colleagues and our younger generation.

Accreditation

This activity has been plann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Essential Areas and Policies of the 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through the joint sponsorship of New York Medical College and the SNUCMAA of the North America. New York Medical College designates this educational activity for a maximum fo 13.5 AMA PRA Category 1 Credit. Physicians should only claim credit commensurate with the extent of their

Speakers Roster

- Choi, Young Ja, M.D.**
Professor and co-Vice Chair of Path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Haven, CT
- Bae, Sung Ho, M.D.**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Neur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Medical School, Philadelphia, PA
- Choi, Yong Sung, M.D., Ph.D.**
Professor of Medicine and Director of Cellular Immunology Lab
Tulan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Orleans, LA
- Chung, Christopher, M.D.**
Associate Professor of Psychiatry
David Ga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CA
- Chung, Edward, M.D.**
Professor Emeritus in Medicine and Cardi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
- Ha, Kwon Ick, M.D., Ph.D.**
Presi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Seoul, Korea
- Hann, Christine, M.D., Ph.D.**
Fellow, Oncology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altimore, MD
- Hann, Hie-Won, M.D.**
Professor of Medicine/ Director of Liver Disease Prevention Center
Jefferson Medical College/ Thomas Jefferson Univ. Hospital, Philadelphia, PA
- Kang, Soo Sang, M.D., Ph.D.**
Professor of Pediatrics
Rush University, Chicago, IL
- Kim, Jong Ho, M.D., Ph.D.**
Research Coordinator, Nuclear Medicine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New York, NY
- Kim, Louis, M.D.**
Resident, Neurological Surgery
Barrow Neurological Institute, Phoenix, AZ
- Kim, Raymond, M.D.**
Associate Professor of Medicine
Mayo Clinic College of Medicine, Rochester, MN
- Lee, David, M.D.**
Assistant Professor of Surgery/Urology
Penn Presbyterian Medical Center, Philadelphia, PA
- Lee, Francis Chae, M.D.**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of Psychiatry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
- Lee, Francis Young, M.D., Ph.D.**
Associate Professor of Orthopaedic Surgery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ollege, New York, NY
- Lee, James J., M.D., Ph.D.**
Assistant Professor of Medicine/ Medical Onc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Haven, CT
- Lee, Woong Man, M.D.**
Pathologist
Glensfalls Hospital, Glensfalls, NY
- Min, Kyung Whan, M.D.**
Adjunct Professor of Pathology
University of Oklahoma College of Medicine, Oklahoma City, OK
- Minn, Kyung Tak, M.D.**
Psychiatrist
Retired
- Oh, Tae Hee, M.D.**
Professor of Anesthesiolog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Haven, CT
- Park, Margaret, D.M.D.**
Private Practice/Clinical Instructor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 Park, Sai Rok, M.D.**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Medical School
President / SAM-CMWM International
- Park, Sang Chul, M.D.**
Professor of Bio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Rhee, John, M.D., MPH**
Associate Professor of Otolaryngology & Communication Sciences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Milwaukee, WI
- Rho, David, M.D.**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Ophthalmology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NJ
- Wang, Kyu-Chang, M.D., M.S.**
D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Yoo, Tae June, M.D., Ph.D.**
Professor of Otolaryngology/Head & Neck
University of Tennessee, Memphis, TN
- Yoon, Patrick, M.D.**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Orthopaedic Surgery
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 Minneapolis, MN

FOR MORE INFORMATION

SNUCMAA@yahoo.com or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SUMMER CONVENTION COMMITTEE

C. Stephan Kwon, M.D. (64) Tel: (718) 818-3099
Kenneth K. Song, M.D. (64) Tel: (845) 634-2491
Inyoung Chung, M.D. (71) Tel: (908) 647-8350
Yong Ho Auh, M.D. (72) Tel: (201) 224-4809
In Suk Seo, M.D. (73) Tel: (201) 871-9191

REGISTRATION FORM

NAME(ENGLISH)

NAME(KOREAN) CLASS OF

ADDRESS

HOME TELEPHONE

OFFICE TELEPHONE

EMAIL

SPOUSE'S NAME

CHILDREN (NAME & AGES)

*Please make check payable to SNUCMAA and send to
New York Office before May 20, 2006*

REGISTRATION FEE \$300.00
Alumni Member Prior to class 56 or in training \$150.00

TALENT SHOW ON JUNE 27, 2006

MC: Changi Yang (63) \$75.00 per adult x _____ = \$ _____
\$40.00 per child x _____ = \$ _____

GRAND BANQUET DINNER/DANCE ON JUNE 28, 2006

Music by Yang Seil and Band \$100.00 per adult x _____ = \$ _____
\$50.00 per child x _____ = \$ _____

GOLF

June 26, 2006 \$90.00 per person x _____ = \$ _____
June 27, 2006 \$110.00 per person x _____ = \$ _____
June 28, 2006 \$110.00 per person x _____ = \$ _____

CONTRIBUTION FOR SNUCMAA

\$ _____

TOTAL

\$ _____

*Note: June 26, Monday evening is Class Reunion Night, independently
organized by class representatives. Small class member should all the
Convention Committee at 718-818-3099 or e-mail to ins9002@gamil.com*

ROOM RATE Standard Room: \$115 per room per night
Suite/Parlor: \$275 on bedroom per night
\$375 hospitality suite per night
BY INTERNET www.trumptaj.com / Code for group: BSEOUL6
BY PHONE 800-825-888 / Code for group: BSEOUL6
DEADLIN FOR GROUP PATE REGISTRATION: May 25, 2006

GOLF TOURNAMENTS

- MONDAY JUNE 26, 2006**
1:00pm Shotgun / Harbor Pines Golf Club / Egg Harbor Township, NJ
Green fees with box lunch: \$90.00
- TUESDAY JUNE 27, 2006**
1:00pm Shotgun / Blue Heron Pines Golf Club - West Course
Green fees with box lunch: \$110.00
- WEDNESDAY JUNE 28, 2006**
1:00pm Shotgun / Harbor Pines Golf Club / Egg Harbor Township, NJ
Green fees with box lunch: \$110.00
Wednesday's golf outing is a Championship Tournament.

Directions

1000 Broadwalk at Virginia Avenue, Atlantic City, NJ 08401
Tel: (609) 449-1000 or 800-825-8786

The Taj Mahal is only 15 minutes from Atlantic City's International Airport, an hour from Philadelphia International Airport and 2.5 hours from Newark International Airport. Minutes away from Amtrak. Convenient parking for over 7,000 vehicles. If you are flying into PHL(Philadelphia, PA) or EWR(Newark, NJ) the planning committee recommends that you rent a car for your commute to the Taj Mahal.

Take New Jersey Turnpike, Exit 11 to the Garden State Parkway. Take Exit 40 to White Horse Pike East(Route 30). Follow signs for Virginia Avenue.

Take the Ben Franklin or Walt Whitman Bridge, the North South Freeway(Route 42) the foot of the Atlantic City Expressway. Follow signs for Trump Taj Mahal/Virginia Avenue.

Travel Assistance

Ms. Lydia Jeong: Tel: (212) 971-0022 lydiawtb@yahoo.com

시장경제에 파탄된 중국의료

- 허다한 무보험자 여행에서 확인하다 -

김 일 훈(57)

중국여행을 자주하다 보면 갈 때마다 눈부신 발전을 한 번모된 모습에 감탄하게 된다. 매년 미국을 능가한 경제성장률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연간경제성장률이 8%선을 과시하던 중국은, 2005년 12월 20일자 중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4년도 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16.8% 증가했다는 놀라운 발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대 경제대국에 속한다.

중국개방직후(1988년) 상하이(上海)에 갔을 적엔 고층건물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던 것이 이젠 그곳 마천루가 300개를 초과한다고 하며, 황포강 너머로 보는 상하이 변화가를 메운 마천루 광경은 뉴욕 맨해튼의 장관을 무색케 한다.

베이징(북경)시엔 자동차 130만대가 붐비며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활기에 차있고, 모두들 친절함을 보고 느낀다. 2000년 이전엔 서안(西安) 등 중국 명소의 관광객은 주로 미국인과 일본인이었던 것이, 최근엔 태반이 중국 본토인으로 대치되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도 여유있는 중산층이 많아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9억의 농민 특히 내륙과 서역지구주민은 아직도 후진사회의 빈민에 속하고, 그들의 80% 이상이 무보험자로 방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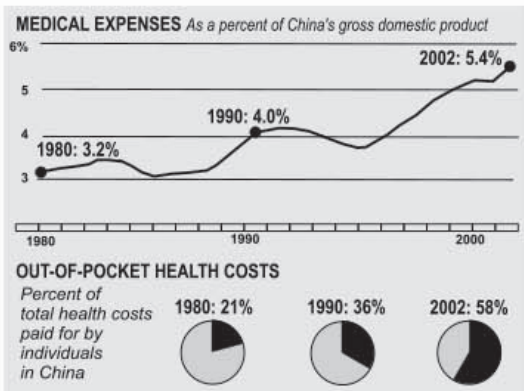
1950년 무산계급정부수립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의료제도에서 집단농장과 공장노동자를 위시한 전체국민은 '맨발의 의사'(*주 1)에 의해서나마 100% 의료커버가 되었었다.

<*주 1: 문화혁명 전후 단기교육으로 급속히 양성된 저질의사임. 군대위생병격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부터 시장경제 정책과 더불어 의료부문에서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허용한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었으며, 공무원 등 일부 계층을 커버하는 국가의료보험과 더불어 2원제 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도표 1-

위: 중국의 GDP대비 전체의료비 비율(%)
아래: 전체의료비에서 개인지출비용 비율(%)



경제개방으로 이익 추구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상승하는 GDP와 함께 국민의료비도 계속 증가하여 2002년도엔 GDP의 5.4%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의료비에 대한 각 개인의 평균 의료비지출 비율도 1980년의 21%에서 2002년엔 58%로 증가했다 (참조: 도표 1). 그 결과 1990년도부터 민간부담 의료비는 매년 20%이상 증가하여 정부지출 의료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참조: 도표 2).

이렇듯 전체국민의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제도와 개인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료에서, 정부부담

의료비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참조: 도표 3).

최근 정부서 실시한 전국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인 49%는 의료비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들어도 의사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사항 중에서 단연코 첫째가 '합당한 의료혜택'이고, 다음이 '행동자유' '정직한 정부' '환경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담 의료비 증가는 무보험자 50~90%(*주 2)라는 의료후진국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버드보건대학 Blumenthal 교수의 말처럼 "중국인은 현재 국가경영(사회주의)의료제도와 시장경제에 입각한(민간보험)의료제도 사이에서 저버림 받고 있다."

<*주 2: 도시인구의 약 50%와 농촌 및 내륙지역 인구의 90% 이상이 무보험자이다.>

'자본주의식 의료개혁'을 실시한지 20년이 경과한 지금 중국의료는 이렇듯 한계에 도달했으며, 드디어 중국정부는 '완전 실패'를 자인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9월 보건부 발표).

의료파탄을 시인한 중국정부는 직장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직장인에게 HSA(건강저축 계좌, *주 3)를 설치케 하는, 소위 employer-mandated insurance (고용주에 의한 의료보험 의무화)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성공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주 3: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의료보험정책이며 미국의 부시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필자칼럼 (2005. 11. 9) 참조바람.>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충분한 세금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정부는 그들이 현재 치중하고 있는 주택 교육 국방비 예산 대신, 의료제일정책으로 전환하여 방대한 예산을 의료비에 투입하지 않는 한 파탄수습이 힘든 일은 물론이다.

몇년전 사스유행을 계기로 폭로된 중국의 부실의료는 '중의'의 나라에서 미리 짐작된 일이기도 하지만 중국인의 태반이 무보험자이고, 중국에선 생명이 위독해도 돈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다는 뉴스를 의학자와 미국주간지 그리고 뉴욕타임스 등 일간지에서 읽은 기사를 인용해서 필자는 의협신문에 '의권도 인권도 없는 중국'(2004. 12. 23)라는 칼럼을 써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라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선입감으로 언론의 과대기사일 것이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NEJM(2005. 9. 15. Privatization and its Discontents, 중국의료의 민간화와 불만)과 BMJ(2004. 12. Restricted Freedom on Health in China) 등 의학지에 게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읽게 되어 중국 의료현실이, 돈 없으면 죽을병에 걸려도 의료혜택 못 받던 40여년 이전의 한국(필자의 한국 수련의시절)과 흡사하다고 느꼈지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경제개방 이후 중국은 중산층 증가를 미끼로 의료부분에서 정부부담을 덜고자 무턱대고 미국식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파산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빈곤한 노동자와 농민이 다

수 인구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세계 제일 부유한 나라 미국의료를 모방하려는 자체가 큰 모순이었다. 미국서 15.7% 무보험자 해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는 하나, 건전한 안전망으로 해서 응급의료 접근은 전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안전망'이란 개념조차 없는 중국에서 무보험자는 생명이 위독해도 의료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니, 무산계급을 위한 국가를 세운 지하의 모택동이 들으면 통곡할 노릇이다.

아무리 시장경제정책으로 전환했기로서니 나라의 본바탕이 평등을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위정자가 이렇듯 허무맹랑한 의료정책을 세웠을까 하는 의심이 앞선다. 미국의 거대한 '돈의 힘'과 '중국의 빈곤'을 비교하지 않고서, '황새 다르려다가 가람이 찢어진 참새' 현상이 바로 중국의료파탄이라 하겠다.

필자는 지난 2005년 9월말 중국실크로드여행 중 만난 중국인 가이드들에게 의료보험 유무를 문의해 보았으며, 귀로에 북경서 3일간 머물면서 대학병원 두 곳(북경대학병원과 유니온 병원)을 찾아 중국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서로 의사소통은 필자의 중국어 실력 25%와 그들의 영어실력 25% 그리고 나머지 50%는 필담으로 대화하니 별로 불편이 없었음을 고백한다. 궁금증 풀이에 대한 결과만 알리고자 하며, 추가해서 우연한 기회에 한의사 진료소에서 겪은 웃음거리 아닌 진담을 적고서 이번 글을 끝낸다.

▲보험: 중산층에 속하는 여행안내원들은 개인회사 직원인데, 질문 받은 8명중 의료보험 소유자는 가이드 반장 1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열심히 돈벌이해서 좀더 저축한 다음에 보험가입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를 찾는 환자: 대학병원 내과의 말에 의하면 환자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사수입: 옛날과 달라 근래 의사수입은 전문가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대학병원 의사 월급은 다른분야 대학교수의 약 2배가 된다고 했다. 의사들 월급은 경력에 따라 2천원(250달러)에서 5천원(625달러)정도이다. 한국의

사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입이다.

음식점엔 팁이 없는데도, 그곳 여자점원의 월급이 70달러 정도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한의사 진맥: 북경서 미국인 5명과 함께 몇 시간 단체관광하고 호텔에 오는 귀로에 영리목적의 관광코스인, 북경서 이름난 한의학 진료소에 안내받았다. 위엄 갖춘 중년의 한의사 3명이 나와 앉아있고 그중 한명이 영어통역을 통해 진맥강의를 했다. 오른손 3손가락 진맥으로 각각 심장, 간장, 비장의 상태를 진단하고 왼손 3손가락으로 각각 두뇌, 위장, 신장(생식기)진단을 한다고 소개하고, 진맥 원하는 자는 나오라 했다. 50대 미국남자가 나갔더니 한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몇 분간 진맥 끝에 '동맥경화증'이라 진단하고서, 일금 100달러 정도 되는 약초처방 3주일분을 복용하면 병 완치가 된다고 장담했다. 물론 그 미국인은 오락장에 와서 기분낸 격이지만, 듣기로 한국관광객들이 감언이설에 속아서 약을 많이 팔아 준다는 후문이다.

미국 같으면 '영어'로 이따위 의료행위를 하는 무당꾼들은 모두 감옥행할 텐데, 관광회사와 짜고서 한국관광객덕에 영업이 유지되는 모양이다.

도표 2: 민간의료비와 정부의료비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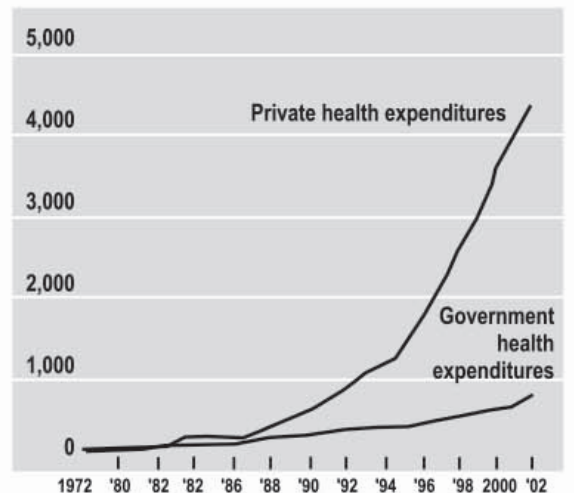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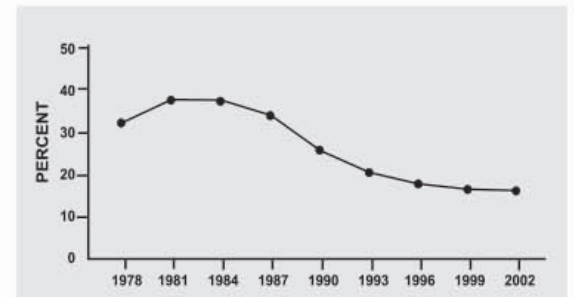


도표 3: 중국 전체의료비에서 연도별 정부부담 비율(%)



함춘회 소식

4월 함춘회 모임

4월 22일(토) 뉴욕지부 춘계골프대회 (김재남 쥘)에서 4월달 함춘회 모임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일시: 2006년 4월 22일(토) 오후 1시

장소: Bergen Hill C.C.

- Golf를 치시지 않는 분은 Dinner에 오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5월 함춘회 모임

일시: 5월 10일 정오 (둘째 수요일)

장소: Palisadium Restaurant

700 Palisade Dr. Cliffside Park

여성강좌: "Estate Planning"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문순씨께서 지난 번 "Long Term Care"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고 계속해서 5월 달에는 "Estate Planning"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 6월달 함춘회 모임이 없으며 6월 25일(일)부터 29일(목)까지 Atlantic

City에서 있는 Summer Convention에서 뵙겠습니다.

다가오는 Summer Convention을 위해서 각 학년에서는 학년별 대항으로 펼쳐질 "Talent Show" 준비를 위해서 바쁘며 맛있는 장소에서 근사하게 진행될 2006년 Summer Convention에 기대가 큼니다.

* Dr. 강상진 사모님께서 3월달 모임에 참석하셨으며 \$100을 Donation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2006년 Summer Convention: 6월 25일(일)부터 6월 29일(목) Taj Mahal Hotel, Atlantic City, NJ Dr. 양찬기(63)씨의 재치있는 사회로 Grand Banquet이 있을 것이며 Night Club Show 관람 뿐 아니라 '깜짝 쇼'도 있겠습니다.

미리 Schedule를 계획하시고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병술년에 부치는 글

이 덕 송(60)

2005년의 묵은 해가 지나가고 200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해가 丙戌年이고 보니 12지간(支幹)의 동물가운데서 개띠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 때에는 개란 동물은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시편 66편 33장)로 취급되어 왔으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가축(마태복음 15장 26-27절)으로 길들여져 왔지만 이방인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오고가는 욕설 가운데 개가 차지하고 있는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구(黃狗)-(속칭 풍개)는 우둔해 보이고 지저분하여 복 날 사람들의 식욕을 돋구는(?) 희생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늘진 곳에서 축 늘어져 낮잠을 자고있는 것을 볼때면 "개 팔자가 삼 팔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타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도 엿볼수가 있습니다. 개는 그 종류도 다양해서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프랑스의 푸들을 비롯해서 착실하고 집요한 영국의 불독과 사냥지만 이지적인 독일의 셰퍼드 그리고 한국 토종인 진돗개 등은 집과 재산을 지켜주는 충성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생명을 구해주는 용맹성을 돋보일 때도 있습니다.

개띠의 해를 맞이해서 개에 관한 속담들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주고있는 교훈과 뜻을 헤아려 보므로서 보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똥을 돈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와 같은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돈 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 만이 지상 최대의 보물이고 보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복 날 개 폐똥 한다." 식으로 두들겨주었으면 속이 후련해 질것만 같습니다.

요즘 TV나 신문지상으로 오르내리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입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흥분다"란 속담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항상 너 때 문이란 사고방식들이 "제 버릇 개 못 준다"로 되어버려 한국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대보를 날 개 꼴" 처럼 풍요속에 빈곤을 느껴야만 하는 사람은 오직 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어서 "기르던 개에게 다리 붙린다" 겪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눈속에 있는 티를 닦할 것이 아니라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란 말은 바로 황우석 교수와 그의 연구원들을 두고 하는 명언이라고 여겨집니다. '스너피' 한 개를 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공든 탑이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웃 집 개도 부르면 온다"고 하였는데 거짓 논문이 밝혀진 이상 그들을 동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보니 결국 "개 밤에 도토리" 처럼 왕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룻감아지 밤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격언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 하나를 알면 열을 내 세우는 경솔보다는 열을 알아도 하나를 터득하고 있는것 처럼 낮아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선생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일이 그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깨닫는 이가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 똥은 약에 쓰려면 없다"란 속담이 생겨 났는지도 모릅니다. "개 똥도 약에 쓰려면 FDA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농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수고를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삶을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란 귀여운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늙은 개는 공연히 짖지 않는다" 와 같이 입이 무겁고 만사에 심중함을 더합니다. 이곳 미국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도 잘 벌지만 벌어드린 돈을 가치있게 쓰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여기서 한결을 더 나아가 "개 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 고 명령형이 되었으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 "도둑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치더라도 운명론에 의지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 읊는다"라고 하였으니 한국 사람들의 특성인 빨리 빨리 버릇에서 벗어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금자탑을 쌓아 올려야겠습니다. "개 발에 땀 난다"란 멋지고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개의 발에는 절대로 땀이 나지 않는데도 땀을 내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병술년 이 해에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공적인 월드컵 전은 물론이거니와 계속적인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흥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故 김성진 박사님 회고담

정 정 수(62)



서울대 사대교수로 봉직하셨던 동생 김정진 교수님 유고와 함께 "텨으로 산다, 개구장이 시절, 서당개 풍월" 수필집을 출간하기로 했다 한다.

김 박사님은 그 당시 너무나 유명한 사회 정치 교육계 명사이셔서 한국사람이면 익히 알려진 분으로 1930년 우리 모교인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제 1회로 졸업하시고 모교 의과대학에서 교육 연구, 우리 모교 학장, 경기고교 동창회장, 한국마사회 회장, 국제로타리 한국지부장, 보사부장관, 공화당 참담원으로 공화당 중앙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등 정계에서도 활약하시고, 향간에 당시 한국이 낳은 3대 수재(유진오, 주요한, 김성진)라는 소문도 돌았었다.

나는 1970년 펜실바니아의 뉴저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Allentown 시에서 김 박사님의 큰 따님 김정환 박사님(핵 방사선과 전문의)이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1972년 김 박사님이 뜻하지 않은 정치 망명으로 우리 Allentown 큰 따님 집에서 10여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을 가까이 10여년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아름답고 값진 추억을 남겼는데 탄신 100주년을 지내면서 몇 자 회고담을 적어보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선배님은 우리 동네에 계실때에도 여러 동창회 또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모임에 열심히 참가하기를 원하시고 큰 따님께서 장거리 운전이 익숙하지 못하셔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참석하면서 많은 훌륭한 저명 선배님 인사들과 만나 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런저런 뒷사람들한테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근대사에 역사적인 사건들의 실상들도 궁금해서 여쭙어보면 그대로 잘 대답해 주셔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셨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말을 타고 시골 토속음식점을 누비면서 막걸리 마시던 여담도 들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선물하셨다는 골프채로 매일매일 거의 빠짐없이 골프를 즐기셨는데 얼굴이 까맣게 타셨

고 하루는 뜻밖의 홀-인-원을 하셔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 신문에도 기고 소감을 발표하셨다.

1974년에 우리 의과대학 동창회 신문을 창간하기 위하여 노용면 선배님이 김성진 선배님을 찾아가 오랫동안 같이 의논한 끝에 그 이름을 '시계탑'으로 정하는데 합의하셨다.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 재학시 오펜스트라의 바이올린을 하시던 솜씨로 자리가 마련되면 '올 밑에 봉선화'를 연주도 하셨다.

선생님 생신파티에는 많은 선후배님들이 모이시는데 사모님이 손수 만든 신상추겉절이 양념은 너무나 맛이 좋아 우리 동네 사모님들이 다 배우려고 노력했다. 한번은 이진순 사모님이 부른 옛날 참노래는 너무나 우아하고 일류급이었다.

10년후에 귀국하셔서 마포에서 사실때도 몇 번 여기 따님 집을 다녀가셨는데 옛날 자기 주변에 우글대던 정객상객 친구들은 흔적도 안보이고 의사 출신 동료들만 끊임없이 한결같이 교분을 유지해서 대접해 주더라고 말씀하셨고, 연하장 보낼때가 그렇게 맘을 텐데도 鄭丁壽라고 저의 한자이름을 하나도 잊지않고 보내주시면서 저를 감격시키셨다.

자제분들도 모두 훌륭하게 두시어 아드님 김시한 박사(12회)는 뉴욕에서 외과개업하셨고, 사위 강희륜(13회) 삼성 제일병원 마취과장 부원장, 사위 이현재 상대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거쳐 노태우 제6공화국의 초대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큰 따님 김정환 박사는 핵 방사선진단학을 저의 동네에서 개업하시다가 한국으로 은퇴하셔서 친척들과 건강히 지내고 계시던 모습을 작년 4월 한국방문때 반갑게 만나보았다. 특히 강희륜 박사님은 저와 미국에서 한국에서 개인 교분을 여러번 나누었는데 이번 여름 피츠버그에 있는 아드님을 방문하신다기에 꼭 김박사님이 10년을 지내신 Allentown에도 들러서 저희 집에 머물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김박사님은 타계하실때도 1991년 6월 27일, 86세의 천수를 건강하게 누리시다 오전에 파고다 공원에 나가셨다가 냉면으로 점심을 드시고 돌아오셔서 자는듯이 조용히 평화로이 가셨다니 복된 임종을 맞으셨음이 틀림없다.

아무쯁록 어느듯 100주년 탄신년을 지내면서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이 글을 마친다.

야!

평강아

이
태
안
(67)

평강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원통하고 분하고, 또 분해서...
그 좋다고 하는 은퇴생활 한번 못하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리운 자식을 두고, 아내를 두고
三週를 싸우다 갔구나.
아무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지만
이젠 나도 무섭고, 겁이 나고
살얼음 걷는 기분이다. 이젠 어떻게 살라고.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 되어 버렸으니,
생전에 실컷 육이나 해줄것을,
이 못쓸 사람아.

먼저 가다니.

아무리 저승이 좋다지만, 이승만할까?
Medical Student Society, 거제도 여행, 부산 꼴풀이 죽,
한라산, 가리방, 대전 너희집... "아, 옛날이여!"
이제는 "이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이 빈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정답이 없구나.

지도에도 없는 곳으로 갔구나.
e-mail은 있겠지.
네가 편지 안하면 나도 안한다.
기다릴게.

태안이가,

1960년 초의 청량리는 가난한 서울의 이웃사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늦가을 세찬 바람이 교정을 휩쓸고 지나 갈 땐 마치 만주 벌판의 독립군 초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곳, 청량리에서 69ers는 의예과 일년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해엔 훨씬 서쪽인 동송 동문리대 교실 자리로 옮겼다. 거기서 공부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고 교정의 잔디밭에 누워 지나가는 여대생들의 미니 스커트를 훑쳐보며 5월의 라일락 향기에 흠뻑 젖어있었다.

의과대학 6년 중 이때가 음악과 소설 속에 빠져 버린 낭만의 시절이었다. 의예과 이년을 마치고 종로 길 건너 연건동 본과로 진학했다. 서쪽으로 더 이동한 것이다. 무수한 선배들이 거쳐간 손 때 붙은 강의실에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예방의학, 미생물학.... 등 기초의학 공부를 끝냈다. 그리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따라 꼭대기에 시계탑이 보이는 임상의학 교실로 입성했다.

흰 카운을 팔러거리며 병실에서 병실로 병아리 의사 흉내를 마지막으로 이년에 걸친 임상 경험을 끝내고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뒤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병원 인턴으로 들어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현해탄, 태평양 건너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곳 미국까지 건너왔던 69ers 이었다.

실로 모택동 주석의 대장정보다 훨씬 긴 대서진을 했고 패잔병의 도망가는 행렬이 아닌 청운의 뜻을 이루려는 개척자들의 발걸음이었다. 꼭 칼과 대포로 전쟁터에서 싸워야만 전사(soldier)가 아니다. 매일 살고 있는 현실과 부딪치고 넓게는 자신들과 싸우는 우리 모두가 전사인 것이다.

이렇게 먼 서진을 한 후 미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69ers의 일부가 만나 코스타리카 여행을 했다.

춘심일 열 하루, 토요일(여행 첫날)

택시 창문을 통해 보이는 시카고의 아침은 안개가 자욱히 끼었다. 미지의 세계,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부단한 노력이 여행이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떠난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이란 시인 T.S 엘리엇의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우리 같은 범부들은 여행 갈 때마다 소풍 가던 날 새벽 일찍 일어난 초등학교생마냥 가슴이 들떠있다. 오해어 공항에서 시카고의 신사로 알려진 김윤태 동문 부부, 모교에서 후배양성을 하고 돌아온 조중행 부부, 먹물쟁이로 서서히 변신하는 필자 부부, 이렇게 6명의 시카고 finest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몸을 실었다.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공항에 도착하니 오후 6시 반, 거의 하루가 걸린 셈이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가이드를 서둘러 따라 가다가 헛발을 내디뎌 오른 발이 조금 삐걱했다. 아픈 때문에 찢끔 눈물이 나올려는 순간 "내가 헛발 짚은 곳이 그 옛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선생이 걸어들었던 땅인지도 몰라"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러자 입가에 미소가 흐르며 통증을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행중 사람 사는 곳에선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망쳐서는 안 된다.

산호세의 꼬로비시 호텔에는 7시가 넘어서 체크인 했고 먼저 와있던 뉴욕의 멋쟁이 김중권 동문 부부, 흰출판키에 미남형인 뉴저지의 육순재 동문 부부와 합류하여 한식집에서 늦은 저녁을 즐겼다.

여행 이틀째

어제 밤늦게 도착한 마이트의 귀재 뉴욕의 엄규동 동문 부부, 재치있는 말솜씨로 동기들을 잘 웃기는 오하이오의 김윤성 동문 부부, 환갑, 진갑 다

지났어도 동안을 잃지 않는 펜실바니아의 변용석 동문 부부, 언제 보아도 차분하고 점잖은 이도령 타입의 워싱턴 DC의 박수용 동문 부부, 2004년 총동창회 썸머 캠프의 책임자로 수고했던 메릴랜드의 도상철 동문 부부로 이제 20명의 동문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아침 식사를 들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코스타리카는 콜럼버스 선생의 네

나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승자의 판 돈이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여행 중에 필요한 공금에 합쳤으니 역시 69ers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셋째 날

이른 아침을 먹고 산호세에서 태평양 쪽으로 두 시간을 버스로 달렸다. 코스타리카의 기후는 년중 평균 온도가 밤엔 섭씨 55도, 낮엔 75도쯤 되고 우기(6월-11월)와 건기(12월-5월)로 나

스타리카는 역시 농업국가다웠다. 인류학자들의 추측으로 약 만여 년 전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다. 콜럼버스 선생이 1502년 9월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으나 별 볼일 없는 땅이라 관심밖에 있다가 17세기, 18세기가 되어서야 스페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착자들이 달고 들어온 Small pox로 인해 원주민들은 거의 전멸하고 지금은 코스타리카 인구의 95%가 스페인계 백인들이고 단 1%만이 원주민이라 한다. 불행하게도 주인과 객이 완전히 바뀌진 썩이지만 백인이 많은 나라라 내전도 케릴라도 없고,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부유한 남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코스타리카 관광의 금자탑인 아레날 화산은 활화산으로 1969년 화산이 크게 폭발한 이래 산꼭대기에서 용암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아침 골프와 몇 시간에 걸친 마르코 폴로 여행으로 피곤해진 육신을 용암으로 데워진 섭씨 40도의 따끈한 Tabacos 자연 온천장에 폭신 담그고 나니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았다. 온천 물 속에서 육순재 동문의 시범에 따라 요가 체조를 하는 동문 부인들의 모습이 아주 좋아 보였다.

우리 일행은 온천욕을 마치고 아주 맛있고 고급스런 저녁 식사를 끝내고 아레날 화산 중턱에 자리잡은 Los Lagos 호텔로 들어갔다.

활화산이 언제 터질 줄 몰라 이곳에는 고층 호텔이 없고 거의 단층건물이지만 방안은 고급스럽게 꾸며졌다. 아래는 동네 마을의 밤 풍경이 펼쳐있고, 밤하늘엔 오리온 성좌가 반짝이던 그 날밤, 우리는 호텔 방 앞에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가끔 쏟아지는 빗방울을 맞아가며 늦게까지 마이트를 즐겼다.

다섯째 날

원래는 골프를 하루 더 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을 바꾸었다. 아침 일찍 조그만 보트로 아레날 호수를 한바퀴 돌면서 저편 우뚝 서있는 아레날 호수를 가깝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레날 화산은 언뜻 보면 처녀의 젖가슴처럼 생겼다. 용암이 흘러나와 수증기를 만드는지 화산 정상은 항상 구름에 살짝 가려 젖꼭지가 보일 듯 말 듯 동문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보트 투어가 끝난 뒤 동문 부인들은 다른 온천장(Aldi)에서 온천욕을 즐겼고 동문들은 카노피 투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산길을 내려다보니 울창하게 깔려있는 열대 우림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고 우림 속의 침묵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타고 노는 모습도 보였다. 카노피 투어를 주관하는 레인저에 의하면 열대 우림 속의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 케이블을 타고 열 다섯 점거장을 거쳐 내려가는 스포츠라 한다. 흰머리가 무언지 몰랐던 젊었을 시절에는 국군장교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 나이에 그 훈련 비슷한 카노피를 하려하니 겁이 덜컥 났다.

허리에 각종 안전 고리와 벨트, 손바닥을 덮는 두꺼운 가죽 장갑에 헬멧을 쓴 우리의 모습을 숲 속의 원숭이들이 보았다면 무어라고 했을까!

"나무도 제대로 못타는 작자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니, 썩썩....." 이랬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 조금 요령이 생겼다 했는데 14번 코스에서는 우리 동문들이 하나같이 점거장에 도착하지 못한 채 케이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풀이 마치 포수의 아람에 맡겨둔 sitting ducks 같은 처량한 신세였다. 마의 14번이었던 것이다. 먼저 내려온 내가 동문들이 차례로 케이블을 움켜쥐고 내려오는 꼴을 보니 도상철 동문의 운동 신경이 가장 <다음면에 계속>

Sixtyniner의 코스타리카 여행

천 양 곡(69)

번째이자 마지막 신대륙 항해가 있었던 16세기 초에 발견되어 해변이 너무도 아름답다 하여 Rich Coast로 불려진 이름이라고 한다. 산호세는 코스타리카의 수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해발 1200 미터 고지에 자리 잡고있는 전 인구의 1/3인 100만 명이 이곳에 몰려 살고 있다 했다. 여행기간 대절한 최신 대형 버스(마르코폴로)를 타고 대망의 첫 골프 아웃팅이 있는 Valle Del Sol 골프장으로 떠났다.

공중에는 솔개들이 상처난 들토끼를 목격했는지 원을 그리며 돌고 있고, 땅엔 진홍색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제왕나비들이 바람결에 춤추듯 날아다니고, Road Runners(새 이름)를 비롯하여 이름 모를 열대 새들이 사정없이 지저귀는 골프 코스는 태양의 계곡(Valley of The Sun)이라 알려진대로 한 폭의 풍경화였다.

오하이오를 경계로 나눈 동서 골프

누어져있다. 여행의 성숙기는 건기라서 우리는 다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골프 아웃팅은 태평양 해안에 자리잡은 로스 수에노스 리조트의 Iguana(왕 도마뱀)코스에서 가졌다. 이름을 상징하듯 티 샷 박스가 왕 도마뱀 모형이었으며 종종 진짜 이구나나들이 휘어웨이로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녔다. 4번홀 중간쯤에 형광색이 도는 큰 검정색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땅에 짚 편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무언가 하고 자세히 보니 어미 새가 알을 부화하고 있는 모성애의 진지한 모습이였다.

골프 카트를 같이 탄 엄규동 동문은 마이트의 대부 뿐만 아니라 와인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골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도로가에서 우리 일행은 차를 멈춘채 서쪽 바다로 지는 해를 안타깝게 전송하



대결은 흐트러지지 않는 정확한 스윙으로 자기 핸디 보다 5점이나 덜 친 박수용 동문의 활약으로 동이 승리했다. 골프를 끝낸 후 점심은 코스타리카 별미인 커피나무를 태워 구운 통닭구이를 먹고 한 시간쯤 가니 Rain Forest (우림)속에 묻혀있는 라파스 공원이 나왔다. 수백 종의 꽃과 열대식물, 수십 가지의 열대 뱀 종류, 추운 지방에선 볼 수 없는 초록 빛깔의 Humming Birds의 웅웅 소리를 들으며 라파스 나비 공원으로 들어갔다. 그물 울타리로 둘러 쌓인 곳에 수많은 나비들이 날라 다니거나 나뭇가지에 앉아있고, 나방에서 금방 나비가 되어 첫 날음을 보여주는 신비한 모습도 구경했다. 그리고 지팡이를 빗삼아 우림 속 아래 위를 돌아다니며 120피트 높이의 웅장한 라파스 폭포를 관광했다.

산호세로 돌아와 한식 음식점에서 저녁으로 해물찌개를 들고 호텔로 돌아와 호텔측이 제공한 넓은 방에 10명의 동문 전원이 모였다.

골프와 더불어 69ers에게 빠뜨릴 수 없는 마이트 게임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엔 마이트의 봉황도 있고, 닭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병아리축도 끼지 못하는 동문도 있었지만 닭대기라니 사이비 코치라니 하는 웃음소리가 끝

기도 했다. 그날 저녁은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해변가에서 은은한 파도 소리와 라틴 생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곁들인 식탁이었다. 하늘에는 종종 별, 바다 저쪽엔 등대 불, 바람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빗삼아 마이트 게임을 했다.

네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같은 골프장에서 다시 한번 아웃팅을 했다. 골프장의 주변 경치는 물론 골프 코스의 레이아웃이 아주 좋았고 특히 15홀에서 17번 홀은 태평양이 바로 코 앞에 있어 전망이 그만이었다.

조중행 동문은 잘못된 샷이 나오면 그 원인을 찾느라 고심하는게 역시 교수 출신이었다.

시간이 촉박하여 골프가 끝나자마자 점심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때우고 Arenal 화산 지역으로 출발했다. 마르코폴로를 타고 가는 도중 다리 밑 물가에서 여러 마리 악어들이 낮잠 자고 있는 악어 다리도 건넜다. 그러자 "어머, 저기 악어 백들이 줄줄이 널려 있네!"하는 동문 부인들의 탄성 소리도 들렸다. 아레날 화산으로 가는 길가 양쪽에는 망고나무, 야자수 열매, 커피농장, 사탕수수밭, 들판에서 한가로히 풀을 뜯는 소 떼들이 계속 보이는 게 코

Brokeback Mountain

이 건 일(68)



오랫만에 좋은 영화를 하나 보았다. 가서 볼 때도 인상 깊었지만 집에 와서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 했고 또 며칠을 이 영화 생각하며 지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성간의 사랑만 사랑인가. 동성간의 사랑은, 나아가 인간끼리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대만 출신 Ang Lee(한국에서는 이안 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감독이 만든 정말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잘 만든 영화라고 나는 생각 한다. 대학생때 Deer Hunter를 보면서 느끼던 그 전율을 오랫동안 느꼈다.

그는 이 영화로 이번에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게 되었다. 그동안에 '음식남녀' 'Pushing Hand' 'Wedding Banquet' 'Ice Storm' 'Hulk'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Sense and Sensibility' 등등, 대만과 미국에서 많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었으니까 오스카상 수상이 좀 늦은 감도 있다. 그는 원래 공과대학 출신이었고 학생때 연극 활동을 하던 것이 결국 NYU에 유학와서 영화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자기의 재능을 잘 살린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우리 집사람이 매일 커피 담아 마시는 커피 머그에도 쓰여 있듯이 "Success is doing what you love." "Success is loving what you do." 란 말이 정말인 것 같다. 그가 영화를 공부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같은 공과대학 출신 엔지니어.)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그 양반도 역시 같은 연극반 출신. 남편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감독을 잘 아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대만 출신 여자 의사에게서 들은 말이니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장가 잘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겠다.

Brokeback Mountain은 두 카우보이 이야기인데, 그냥 카우보이가 아니라 게이(동성 연애자) 카우보이들 이야기이다. 나는 원래 게이들에 대하여 일종의 앨러지 반응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게이 가 나오는 영화, 소설은 피하여 왔었다. 오죽하면 몇년전 이곳 발레단을 위한 자선모금만찬에 참석 하였다가 열명씩 앉는 테이블에 게이 두명이 앉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는 영문 몰라하는 마누라 손을 끌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 미국에서는 게이들이 점차 사회 주류에 편입되는데 저항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내놓고 차별은 할수 없게 되어 있는지라, 요즘은 주위에 게이들이 점점 더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것 같다. 같이 일하는 그룹에도 20여명

안팎의 인원 중 두명이 게이이다. 덕분에 그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걸 요즘을 느끼고 있다. 게이면 어쩌나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되고 또 그건 그들의 자유이니까 하는게 나의 요즘 생각이다. 이곳에 살면서 인생에서 관용(tolerance)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자기와 다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것은 얼마나 속좁고 비열한 행위인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을 잘 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좀 친한 미국의사가 하나 있다. 서로 집안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큰 아들은 의사고결혼했으며 딸도 결혼했으나 모두 아직 애들이 없고 두째는 결혼도 안했고 아마 그에게서는 손자 손녀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기에 왜 그러냐 하니 게이란다. 얼마전에 집에 자기 파트너라고 한 녀석을 데리고 왔는데 좋은 집안 출신의 훌륭한 청년이어서 자기 부부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고 한다. 어버이로서 어찌 마음을 상하지 않았으리오 만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그의 얼굴이 좀 쓸쓸해 보였다. 이것은 이 감독의 작품중 하나인 'Wedding Banquet'의 줄거리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이다. 대만에서 부모가 뉴욕으로 아들을 보러온다고 연락이 왔다. 아들은 게이, 한 남자와 동거중. 급해서 아는 중국여자에게 애인 역할을 부탁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비밀이 탄로 나고 아버지가 아들의 파트너와 대면을 하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걸 알고는 그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하면서 떠나는 것이 줄거리이다.

이야기가 옆으로 새었는데, 이 영화 Brokeback Mountain의 줄거리는 이렇다.

1960년대, 미국 와이오밍 주, 에니스(Ennis Del Mar)는 중학교 중퇴의 고아, 형에게 얹혀 살다 형이 결혼하게 되는 바람에 더 있을 수 없어 집을 나온다. 잭(Jack Twist)은 부모는 있으나 별로 더 나올것도 없는 집안 환경, 겨우 고등학교나 마쳤을까? (이부분은 불분명하다.) 로데오 대회에 나가서 이름내는 것이 소원이다. 이 둘이 여름 한철 일 자리를 찾아서 목장 감독 트레일러 앞에서 만나는데서 부터 영화가 시작된다.

둘은 Brokeback Mountain에서 여름 한철 양떼를 지키는 일자리를 얻게 되고 높은 산속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서로 외롭고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어쩌다 둘이 게이 섹스관계를 갖게 된다.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일반 관객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곳일것 같다. 둘은 서로, Ennis: "I'm not no queer." Jack: "Me neither. A one shot thing. Nobody's business but ours."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부정하려 하나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게이인 것이 발각되면 린치를 당하고 죽게 되는 환경에서 그들이 감내하는 위험성과 공포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멀리서 쌍안경으로 이 둘을 지켜본 감독에 의해서 이들의 일자리는 끝난다. 말없이 돌아서 걸어가던 에니스가 잭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골목 길에서 짐승같이 울부짖는 장면에서는 우리 가슴도 아프다. 시간은 흐르고 둘은 각각 결혼하여 아이들도 생기고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잭이 보낸 엽서로 둘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어 20여년간을 지속된다. 잭에게서 연락이 없어 애가 타던 에니스가 잭의 집에 전화하여 그의 부인으로 부터 잭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다. 아마도 게이인 것이 발각되어 자기 마누라 아니면 장인 손에 죽은 것일 거라고 에니스는 짐작한다.

잭의 부모를 찾아간 에니스는 잭의 아버지의 냉정한 접대를 받았으나 따뜻한 어머니의 배려로 잭이 쓰던 이층방에 올라가 잭의 어릴적 쓰던 물건들을 보다가 옷거리 옆 비밀장소에 걸려 있는 잭의 셔츠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의 셔츠를 발견한다. 그것은 둘이서 산 위에서 말다툼 하다 싸움을 하게 되었을때 자기가 흘렸던 피가 묻어 있던 셔츠인데 에니스는 잊어버린줄 알고 있던 것이고, 잭이 그걸 훔쳐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니스는 잭 어머니의 승락을 얻어 이것들을 가지고 나온다. 근처 잡화상에서 30전 주고 Brokeback Mountain 사진이 있는

엽서를 사서 자기 트레일러의 옷장 속에 잭과 자기의 피묻은 셔츠 옆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는 중얼거린다. "잭, 난 맹세코..."

영화는 여기까지인데 원작인 Annie Proulx(애니 푸루)의 단편 소설 "Brokeback Mountain"에서는 이렇게 끝난다.

He stepped back and looked at the ensemble through a few stinging tears.

"Jack, I swear..." he said, though Jack had never asked him to swear anything and was himself not the swearing kind.

(그 '에니스'는 뒤로 물러나서 눈물로 메워진 눈으로 그 셔츠들을 바라보았다. "잭, 난 맹세코..."라고 중얼거린다. 비록 잭이 그에게 맹서를 시키지도 않았고 그 또한 맹서하는 타인도 아니었지만은.)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을 수 있었을 만큼, 원작인 단편 소설의 분위기와 내용과 문장을 잘 살리고 있다. 원작 소설의 한 문장이 영화에서는 5분 내지 10분씩 가는 것도 있다.

감독인 Ang Lee의 섬세한 연출과 빼어난 촬영이 -와이오밍의 높은 푸른 하늘과 웅장한 산들- 또한 한몫을 하고 있는것을 잘 알지만 영화를 본후 읽은 Annie Proulx의 원작 단편 소설도 매우 좋았다. Annie Proulx은 내가 현존하는 미국작가들 중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선조가 캐나다 퀘벡에서 정착하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할아버지때 케네터컷트 주에 정착하게 되어 거기서 태어나 버몬트 대학을 졸업하였고 몬트리올의 Sir George William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땀고 이어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구두 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장래 직장 문제로 고민하다 와이오밍 주로 가게 된다. 이곳 생활에서 관찰하고 느낀 것들이 결국 Brokeback Mountain이 실려있는 'Close Range'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농

노승국(70)

째근 고이 잠든 녀의 얼굴 맞대고
내 쉬어 파스한 그대 숨을 내 몸에 채워
바라보는 고운 눈길어 사람이어라.

전생에 못다한 서글픈 이야기
잊지못해 찾아들어 인생에 다시 만났는데
별을 세어 긴긴 밤을 거듭하여도
끊임없는 이 연정을 어이하리.

흰나래 순결한 혼과 혼을 합치어
달빛 찬란한 열매의 그 빛은 여전한데
어이해 우리 이제 기억 잃어 지치려는가.

그대 붉은 입술에 살포시 닿는 열정이
떨리어 수줍던 옛시절을 다시 찾아
잠못 이루어 엮는 수많은 추억들이
가슴을 흘러 넘치어 눈가에 젖는다

《전면에서 계속》 발달한 것 같았다.

마르코폴로는 다시 산호세를 향해 달렸다. 코스타리카의 주소 표기법은 우리와 달라 주위에 있는 어느 큰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몇 미터 거리(예: 맥도날드에서 동쪽으로 20 미터근방)로 표시한다 했다. 여행 가이드 선생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다시 확인해 볼까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사실이라니 믿어야겠다.

우리 일행은 어느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이 흘러놓은 음식을 먹으러 이구나나들이 몰려온다는 지역에 잠시 내렸다. 덩치가 큰 도마뱀들이 나뭇가지나 개울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어느 두 놈은 무엇이 틀렸는지 대낮에 싸움판을 벌리고 있었다. 다윈 선생의

적자 생존과 양육감식 이론의 실험장이었다.

마르코폴로의 스피커에서 퍼져 나오는 라틴 음악을 자장가 삼아 한숨 자려는데 김윤성 동문의 공동 경비 결산 보고가 있었다. 김윤성 동문은 이곳에 이미 다녀갔지만 동기들과 함께 하기 위해 다시 와서 부가이드 노릇 하는 의리의 사나이였다. 산호세 도착, 돼지고기 삼겹살에 소주가 곁든 저녁을 잘 먹은 후 가라오게 밤을 빌려 노래, 춤, 마이트 판을 걸죽하게 벌렸다. 프로에 가까운 동문 부인들의 노래 솜씨를 들으며 마이트 게임마다 꼬박 꼬박 점수 계산을 하는 변영석 동문이 대견스러웠다.

마지막 날

비행기 시간이 오후라서 일찍 집을 쟁겨 포아스 화산 공원으로 떠났다. 시내로부터 약 40분 걸렸는데 사탕수수, 커피밭들이 보이는 계곡의 경치가 아름다웠다. 버스에서 내려 산의 아침 정기를 한껏 마시며 600미터쯤 걸어가니 해발 2700미터 높이 포아스 화산의 거대한 분출구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분출구의 직경이 1.7 미터가 넘는 세계 두 번째로 큰 사화산의 분출구라 했다. "왜 생겼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보고 가세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더욱 좋아요."

분출구에서 피어오르는 신령스런 유황 구름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포아스 화산을 구경하고 내 앞에 걸어가는 김윤태 동문, 제2의 커리

어를 향해 입찬 준비를 하는 그가 부러웠다.

식당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시간이 가면 풍부한 레퍼토리를 가진 재담으로 동문, 특히 동문 부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김종권 동문은 69er의 개그맨 김형곤씨였다. 그리고 수제자로 시카고의 K동문을 얻는 행운도 가졌다.

어느새 마르코폴로는 산호세 공항에 닿았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다. 지금까지 한 말은 허상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는 오직 "자연 보호"에 힘쓰는 69er가 되자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주: 끝 글귀가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숨겨진 뜻이 있으니 아시고 싶은 독자는 69er의 리더격인 뉴욕의 엄규동 동문에게 연락 바랍니다.) 3/19/2006

생각

김재정(60)

"Ich denke, also bin ich." (이히 덴케, 알조 빈 이히.)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인 용어다. 직역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있다."이다. 생각함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되지만 보다 더 넓고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짧은 글이다.

은퇴후의 즐거운 일들중의 하나는 독서(공부)하는 시간이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되새기던 중에 전혀 모르고 지내던 것을 새로 발견하면 시간의 제한이 없이 이 책 저 책 뒤져 보면서 철저히 공부할 수 있는것이 재미있고 만족스럽다. 공부하는 시간에는 자기의 나이도 잊고 어린시절로 되돌아 가는 듯 하여서 좋다.

그대신에(반면에) 은퇴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불편한 것)은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과거의 자기성격의 결함을 후회(後悔)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부모형제에 대한 후회: 나는 부모형제들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결국은 받을 줄만 알고 드릴줄을 모르는 이 기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그때 부모형제들과 같이 지낼수 있을때에 좀 더 다정하게 대하여드리지 못하였던 것이 한이 된다.

조카들에게 대한 후회: 나는 어린 조카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다. 철없는 어린조카가 내 맘에 들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 구타하였다. 이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였을까.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었다. 어린 사람을 구타하는 야만행위는 일본군국사회에서 자기 모르게 본받은 나쁜 버릇이었다. 이북사회에서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조카들을 생각하며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하였던 조카들을 이제 다시는 만나볼 수없다고 생각하면 슬프고 가슴이 터지도록 괴롭다.

친구들에 대한 후회: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지(지내지)를 못하였다. 텍사스 대학 hematology fellowship 로 도미하였던 관계로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마칠 무렵에 모든 인턴들에게 별명을 지어서 부쳤는데 그당시 내 별명은 '돌부처'였다. 얼마나 사교성이 없고 재미없는 성격이였는지 알수가 있다. 친구들과 좀 더 어울려서 재미있게 지내지 못하였던것을 생각하면 섭섭하다.

이 생각 저 생각 후회한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들로 생각을 하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잠을 이루지 못하니 생각이 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계속이었다. 이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애쓰는 생각을 하여보았다.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주위환경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탄하지 못한 사회 환경(일본제국주의 독재사회, 공산주의 독재사회, 자본주의 독재사회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피할수 없이 자연히 구성된 자기의 성격을 타하며 자책하며 후회할 것 없이 잠이나 자자고 자신에게 타일러도 효과없이 불면(不眠)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나는 과거에 자신이 너무나도 비사교적이었고 농담을 할 줄도 모르고 농담을 받아 드릴줄도 모르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현재의 자기의 성격을 과거의 성격과

대비하여 불때에 별로 크게 변한것이 없다함을 느끼면서 내게는(나에게는) 과거를 후회할만한 자격이 없으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말고 잠이나 자라고 자신에게 타일러 보아도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어느날 저녁 "Ich denke, also bin ich."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부터 생각과 불면의 악순환을 극복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내가 생각(비록 소용이 없는 생각이라 하더라도)을 할 수 있는것은 아직도 살아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잠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잠을 자려고 애쓰는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인생은 후회하면서 사는 것 이라고 생각하여본다. 내가 과거의 대인관계를 후회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살아있으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죽으면 할 수 없는 생각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대로 생각이나 하여보자.

죽으면 영원히 잘수 있는 잠인데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자. 살아있는 동안에 잠은 자연히 올수있는 것이니 잠이 오지 않으면 생각이나 하자.

이 세상에 살아있을수 있는 여생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생각과 불면은 악순환이 아니고 양(良)순환이라고 할수도 있다.

이제는 "Ich denke, also bin ich."라는 용어를 되풀이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편한 마음으로 생각이 나는대로 생각하다가 자연히 꿈을 꾸면서 잠을 이루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나기전에 38선이 열려서 부모형제들의 산소(묘지)를 찾아 뵈우고 조카들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있게 되기를 꿈같이 위하여 본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수난

오태희(64)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대의학은 하루이틀이 다르게 개발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난치병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의학 특히 생명공학자들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 치료방법을 찾기 시작하지 이미 반세기 가 흘러가는데 아직도 시원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일부 생명공학자들이 근래에 배아 줄기세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나라마다 법적 규제가 달라서 시작도 하기 전에 수난을 겪고 있다. 수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실험에 필요한 난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논쟁이 으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연구를 하려면 난자가 필요하다. 배란기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인공수정란을 실험실에서 만들어 배양해야 한다. 수정란은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세포분열로 자라난다. 윤리적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수정란이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험실에서 난자를 수정시키는 일은 강간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다. 실험에 사용할 수 없는 수정란은 버릴 수 밖에 없으니 이는 살인이나 마잔가지이며, 난자를 기증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 결국 난자를 사고 팔아야 하는 일을 매춘행위라고 열을 올린다. 반대로, 보이지도 않는 수정란이 생명체라고 믿기 어렵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고 돈 없는 대학생이 학비를 장만하느라 자발적으로 그까지 난자 몇 개를 파는데 무슨 문제냐 하며 난치병 연구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 않는다고 규탄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법적 제약 없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난치병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연구를 찬성하는 사람은, 천주교를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공격하며, 난치병으로 신음하는 환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 한다고 불평이 이만 저만 아니다. 그러나 그토록 열성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자기 가족들이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서면 잘 한다 하고 박수를 치지 않는다. 더구나 난자를 채

취하는 과정이나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어떤지 알고 나면 고개를 휘저을 것이다.

난자채취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건강한 여성이 환자가 되는 사실을 남의 일이라고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다. 후유증으로 자궁출혈, 복수축적, 세균감염, 마취와 진통제의 부작용, 통증, 배란제 사용에 따르는 신진대사 장애, 불임증, 난소암 유발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정신적으로 성기능 감퇴, 수치감, 심리적 갈등을 들 수 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합병증이 발생하여 난자 기증자가 오히려 난치병 환자로 시달리게 된다. 처녀는 처녀막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요즘은 세상에 처녀막 걱정을 하는 처녀가 어디 있느냐 하고 웃을 일이 아니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직계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겪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난자를 기증하지 않을 것이다. 난치병 연구는 의학이 당면한 필수적 과제이지만 성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건 여성 자신의 문제이지 남자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는 없다.

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어도 배아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보다 말을 더 잘 듣는다는 보장은 없다. 배아 줄기세포는 200 가지나 되는 여러가지 신체장기 세포로 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기능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들어 판신불구 환자의 상처난 척추신경 세포를 새로운 신경세포로 바꾸어야 하는데 줄기세포를 어떻게 달래야 필요한 신경세포로 분화되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새로운 신경세포를 환자에게 이식을 해도 상처난 환자의 신경세포가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새로 들어온 세포와 싸움을 하게 된다. 즉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사람의 인종차별이나 다른 없는 세포의 거부반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면역 방법을 또한 찾아 내어야 환자를 치료 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당장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다.

올해들어, 오스트랄리아 연구팀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전립선 세포를 분화시켜 쥐에 이식하여 전립선을 만들었다는 발표는 고무적이다.(Nature Methods, Feb., 2006)

끝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만 이 연구를 할 것은 불문이지만 과학자가 생각을 달리하면 인간복제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사회적 골치리로 등장한다.

키미디언 Bill Cosby의 말처럼 자라나서 부모를 찾아 오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실험실에서 자라난 고양이는 찾아갈 부모가 없다. 행여, 과학자가 엉뚱한 생각으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야후>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한 동물을 복제하여 거리를 누비고 다니게 할지도 모른다. 안 그래도 요즘, 짐승이 사람처럼 정장을 하고 식탁 앞에 앉아 말을 하는 TV 광고를 보면 입맛이 쓰다.

하여튼, 수정란이 생명공학자를 못하고 울리는데 부시정부가 여론을 참작하여 법적규제를 완화할 기미가 보이니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서광이 비친다. (필자 Yale 의대 교수)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원고: (1) 영문으로 쓴 원고, (2) 종교적인 내용 (3)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산속찾아 70일

윤 낙 승(66)

은퇴후 일주일만에 70일 정도 예상하고 히말리야 산맥을 향해 떠났다. 더 있어도 좋고 급할 것 없다는 느긋한 마음이다.

개업중이었을때에는 언제까지는 꼭 돌아와야한다는 제약이 있었던지라 이제는 몸이 녹슬지 않을 정도라는 최소의 활동에서 벗어나 얼마를 더 가더라도 마음을 따라가려는 이 몸을 막지 않으려 한다. 숨쉬며 산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보다는 숨막힐 정도의 감동, 영원히 머릿속에 용솨음치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산 기간이 얼마나 인생의 적도라고 믿고 산다.

7월 하순의 히말리야 남쪽 기슭은 봄순이 한창이어서 에베레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물다. 페리체에서부터는 온 산이 텅 비어있고 구름속이나 싸늘한 부슬비가 썩 감풍과 함께 밑에서부터 몰아친다. 베이스캠프는 너무나 고요하고 쓸쓸하다. 바로 밑에 있는 고락섬에서 고산병으로 구토하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는 두 독일남녀와 이들을 돌봐주는 가이드와 그 오막살이집 주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2세의 날뻐 가이드는 루클라에서 남체까지 한번도 쉬지않고 도망병처럼 급하게 올라오는 나를 보고는 다음날부터는 아예 쉬겠느냐는 말도없이 하루 10~12시간 강행군이다.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했지만 이 과묵한 가이드는 불평도 없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폐의 모세혈관의 내 피가 잘 협조 해주어 다행히도 고산병 증세가 없었다. 다 내려와 루클라를 3시간 정도 남겨둔 파닝에서 일찍 짐을 풀고 쉬어가기로 했다. 루클라는 떠난지 꼭 6일만이다. 트레킹시즌이 한창인 11월에는 하루에도 수백명 등산객으로 붐빈다고 하는데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던 루클라 발 비행기가 뜰수 있었던 순간 우기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했다.



중국군 막사에서 보낸 하루는 너무 길어서 쓸 수 없지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다.

며칠후 도착한 닥터 김용 부부와 카트만두에서 합류하여 네팔 서쪽 산골에 그림같이 자리잡은 시미코트에 내렸다. 몇 번의 비행기 취소로 하늘만 쳐다보며 날씨 좋기만 기다리던 조마조마했던 일은 이제 지났다.

진흙과 모래로 덮인 짧은 활주로와 이를 둘러싼 정부군의 경계가 특이하다. 여기서 포터, 요리사, 가이드, 야크몰이꾼 등 일급 명과 일급 마리의 야크말로 이루어진 캐러밴을 만들어 고난의 산길을 시작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정부군이 손을 댈수없는 반란군 지역에 들어선다. 허름하게 지어진 산기슭 민가에는 반군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이채롭다. 알방 사원 근처에는 마오이스트 훈련장 건물이 있는데 버젓이 그들의 붉은 깃발 날리고 있건만 이를 멀리서 방관만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주일전에 서남부 지역에

서 공무원들을 다수 납치해 갔는데 별수를 못쓴다는 것이다. 나과랑가 고개에서 내려다 본 티벳의 자연 경치는 확 트이고 광대하고 적막한 것이었다.

네팔의 마지막 동네 힐사에 혼자 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이 쭉 둘러서 구경한다. 말쑥하게 초록색으로 차려입은 세 명의 중국병사가 티벳으로 건너가는 현수교를 막아선다. 저것이 카탈리강 결국 간지스강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상류이다. 아직은 네팔인데 완전히 무법지대라고 한다. 인근 주민들은 슬쩍 담배한 단는데 그 중국 병사들도 금방 어느 집속으로 들어가버



려 나의 기분은 누그러졌다. 마오이스트 게릴라 11명이 푸랑까지 가서 판짓하다가 중국경찰에 체포되어 있다는 얘길 듣고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팀다 푸리, 구라짚 짜라프람은 인더스강의 상류가 흘러가는 강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재미있는 유적지이고 성지이다. 9세기서 부터 16세기까지 있었던 구게 왕국의 유적지 짜라프람은 당시 인도의 교아에 있었던 풀류갈의 교단이 몇 번의 실패 끝에 눈덮인 고산을 넘어와 티벳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가 인근 라다크와 서쪽 티벳의 라마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은 파멸된 역사가 있다. 지금은 많이 훼손되었어도 당시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벽화는 꽤 많이 보존되어있다. 목재가 귀한 이곳에 라다크에서 들어오는 건축지와 장인의 역할이 단연 돋보인다. 훼손되기 이전의 완전 벽화는 1948년 독일의 라마 고빈다가 근세 외국인 최초로 이곳을 찾아와 촬영한 덕분에 그대로 그나마 볼수 있다고 한다. 겨울 궁전이 높이 앉아있는 가파른 산속은 온통 개미굴 처럼 뚫린 굴이 급경사로 사방으로 뚫혀있고 파놓은 계단은 풍화작용으로 모두 없어져 다니기가 힘들었다. 20살의 티벳 가이드는 얼마쯤 따라오더니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좀 겁도 났지만 흥분된 마음을 어쩔수 없어 온 산속 굴을 기어 돌아다니다가 나오니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얇은 옷으로 부족했다. 이 근처에는 한국 옛 전설에서나 들었던 고려장 풍습이 아직도 있는가 보다. 죽을때가 되어 기력이 없으면 절벽에 뚫려있는 굴속에 모셔다가 얹혀놓고 오는데 결국은 그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잘되면 독수리 같은 새들이 와서 깨끗이 살을 정리한다는데 내가 겨우 기어올라가 들여다본 굴에선 아직도 썩는 냄새가 도저히 참을수 없도록 시체가 남아있었다. 아마 최근 일 이어서 독수리가 아직 일을 덜 끝냈듯 하다. 여러 종교의 최고 성산인 카일라스 산은 산정 등산은 금지되어 있고 주위는 불수있다. 5,636미터나 되는 솔마라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여름에도 진눈깨비가 내릴 정도로 춥다. 불교도들은 시계방향, 불교 이전부터 사마니즘 비슷하게 있어온 본교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말을 타고 마부까지 대동하고 가는 부자인듯한 본교도도 보았다. 탈초크 쟁포 강을 따라 오다가 며칠만에

팅그리에 왔다. 먼저투성이로 보잘것 없는 동네인데 양의 가죽을 벗겨 죽 늘어놓았고 이도 모르는 순진한 살아있는 양들은 동네 길을 꼭뚫고 지나간다. 여기서부터 75킬로미터 걸어서 티벳쪽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걷는 일이 시작된다. 몇년전에 닦아놓은 자동차 길이 눈에 거슬리고 심한 먼지를 일으키며 고속으로 달려올라가는 랜드크루저들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며칠을 걸어 올라가면서 봐도 걷는 사람은 우리뿐이다. 겨우 만나질이면 한발짝도 안 걷고 베이스 캠프 텐트촌에 갈수있으니 그곳이 온통 관광객으



로 볼베는 것이 이해가 된다. 룽투사원에 밤에 들어가 중들 틈에 끼어 앉아 못 알아듣는 염불이지만 그들의 취침 시간까지 앉아 있었다. 이제는 티벳 중부에서 동쪽에 있는 파솨초 호숫가에 있는 휴양지에 쉬었다. 오기로 하고 완전히 다른 풍경의 숲속을 찾았다. 조그만 섬에 백년 넘는 고목이 울창하고 외롭게 서있는 쭈쭈곰파에 살고있다는 두 여승은 보이질 않는다. 간헐 사원서부터 시작하는 삼예트레킹은 티벳에서는 가장 트레커들이 많이 찾는 것이란데도 이 역시 아무도 볼 수 없는 텅 빈 산 골짜기다. 특히 치투라 고개를 넘을때는 다른 세상같은 적막감이 엄습한다. 이 깊은

산속에 나만 홀로 있으니 전설에 존재한다는 에티라는 반인반수의 짐승이 그저 전설 속에서만 있어주기를 바랄뿐이다. 이탈리아의 산악인 메스너가 에베레스트 탐험중에 실제로 그 괴수 발자국을 여러번 보고 이를 추적하다가 포기하고 쓴 경험담이 있는데 티벳 가이드는 한술 더 떠서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힘세고 육중한 야크도 잡아먹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군 병사들이 가끔 산속에서 없어 지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에티의 밥이 되었다고 엄포를 놓던것이 생각났다.

또 월때가 되어 라사의 북쪽으로 옮겨 4710 미터의 남초 호수를 찾았다. 급새 내린 눈이 호수를 둘러싼 산을 아늑한 병풍처럼 만들었다. 그 추운 날씨에 눈을 맞으며 밥을 썩 야크들은 아무 불평없이 짐승계들 앉아있다.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순응밖에 못하는 순진한 티벳 사람을 보는 듯하다. 칭하이에서 라사로 연결되는 철로는 모양이 좁게 다 완성되어 상하이에서 화물열차가 시범으로 움직인다. 곧 북경에서 라사까지 기차에 앉아 출발이 되었다.

어디를 가나 "티벳 해방 40주년 열렬 환영" 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농노와 지주층, 천민들이 상류층으로부터 혹사 당하고 벼라별 고문을 다 받다가 처참하게 죽어갔거나 마귀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산채로 매장되었던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때늦은 해방이었다. 이곳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친 문화혁명으로 농노와 지주 상과 하의 신분이 뒤바뀐 것이다.

곧게 생긴 무수한 거지들도 상당히 다수가 그 결과라 하는데 떠나오기 전 날 늦게 남은 잉여품이라도 주고싶어 찾아간 어느 길 모퉁이의 그 거지엄마와 두 어린 아이들은 늦어서 이미 자리를 떠났다. 50센트면 하루를 연명할수 있건만, 깊은 산속의 티벳은 두고두고 여운이 남는다.

동기동창 예찬론

이 용 길(62)

우리 16회 동기들이 (이용길, 한상호, 조명호, 여천기, 김경옥, 장순필, 남성희, 이상무, 김호균, 김한중, 정정수) 지난 3월 5일~10일 Embassy Suite Hotel, Temecula, California에서 연례모임을 정말 즐겁게 가졌다.

모두 고회를 내일 모레 앞둔 친구들이건만 어찌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도 반갑고 만만하고 편하고 즐겁게 희희덕거리고 나니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5박 6일이 너무 아쉽고 짧다.

이제 70전, 관절염 등으로 골프를 포기한 친구 또는 와이프들, 골프 스윙이 삐걱거리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평생지기들끼리 자식 손자, 주변에 일어난 인생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정말 시간이 모자랐다.

호텔에서 주는 푸짐한 오므렛트, 각종 과일 등으로 배부르게 먹고, 주위 골프장도 senior rate로 정말 싸고, 매일 골프카트는 한상호, 장순필 동기 등이 준비한 점심이 실려있었다. 매일 저녁 Temecula wine country의 레드 와인을 해피 아워에 무제한 무료로 preloaping 얼큰해서 첫날 한국식당(이용길), 둘째날 한국식당(정정수), 셋째날 중국식당(조명호), 넷째날 Sushi buffet (캘리포니아 동기공동), 맨 마지막날 남성희 동기회장 등이 서로 나누

어 주최하니 날짜가 모자란다. 마지막 날 한국갈비집에서 공짜와 인과 진로소주가 합쳐 드디어 정정수 군은 broken record가 되서 와이프한테 큰 기쁨을 받았더니 친구들 동기동창 예찬론만 했다고 우겼다.

내년은 45주년을 맞아 하와이 Big Island에서 2월에 한미합동으로 모이기로 하고 남성희(전회장) 이용길 이상원(동기회장) 등이 준비를 시작하고 김호균 문상규 군이 62년 동기회 웹사이트를 한국과 합동으로 열도록 연구하기로 했다. 조명호 군이 동기단체 여행도 준비한다.

이제는 골프도 모두 늙어 주 액티비타가 아니니 골프 인치는 친구도 같이 놀 시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허물없는 동기끼리 자주 만나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살기 바란다.

끝으로 주도면밀하게 모든것을 잘 준비한 Dr. & Mrs. 남성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장순필 동기의 넓고 멋진 Temecula 저택에서 연회와 현관에 걸려있는 손영진 동문의 Calicography의 초서 액자에 모든 동기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부디 내년에 다시 만날때 까지 모두 건강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紙上法醫

밀고자의 죽음

노용면(55)

뉴욕시 경찰에서 일하던 케리(Kelly) 형사는 내가 젊었을 때 부터 사건수사를 같이 해 오던 아주 친구와 같은 사탑이었다. 밤이건 주말이건 내 부탁이라면 꼭 들어 주었다. 그는 25년 쯤 나와 같이 일을 해 왔다. 사건수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내가 늘 말하는 팀워크(teamwork)가 바로 이것이다.

오래 전 어느 날, 경찰이 퀸즈에 있는 어느 집 뒷뜰에서 시체 한 구를 발굴했다. 그것은 중년 남자의 시체였고 가슴에 총창 하나가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케리 형사가 전해준 얘기는 다음과 같다.

36세인 에리자베스(Elizabeth) 양은 사무실 서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식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후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 남자는 돈을 잘 쓰고 에리자베스를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값비싼 선물들을 사주곤 했다. 때로는 에리자베스의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사 주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사는 날이 많아졌다. 하루는 에리자베스가 그 남자의 직업에 대해 물었더니, 자기는 계약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청부업자라고 했다. 에리자베스는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남자 친구가 아주 태연스럽게 자기가 한 말을 천천히 되풀이 했다. 자기는 돈을 받고 시키는대로 일을 할 뿐이지, 살인 목적

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가 에리자베스를 잘 신뢰하고 그런 이야기를 토로했는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족탄선언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심한 불안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은 바닷가의 낮은 언덕위에 있었고 뒷뜰이 좀 넓었다. 어느날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에, 뒷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에리자베스가 창문 밖을 내다보니, 그 남자 친구가 땅을 파고 있었다. 무엇을 하느냐고 휴대전화로 물었더니, 그가 자기 사촌과 같이 시체 하나를 파묻고 있다고 했다. 아주 태연한 태도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예고한 바도 없었다.

시체가 묻힌 곳은 잡초로 잘 가리워져 있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눈에 띄일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에리자베스는 그쪽만 보아도 가슴이 출렁했다. 더군다나 밖에서 무슨 소리라도 나면 그녀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그 남자 친구가 에리자베스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바빠서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는 모든 일들에 극히 혼란스러워 했다. 약 없이는 밤에 잠도 못 자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그저 딸의 건강만 염려하고 있었다.

에리자베스는 결국 가까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살인 사건이 하나 있다면

서 머뭇머뭇 증언대기 시작했다. 이런 전화가 두 세 번 걸려 오자, 그 사건을 케리 형사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케리 형사가 에리자베스를 만나, 식당 등으로 초대하여 그녀를 안심시키는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을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옳겠다고 암시하였다. 그녀가 처음에는 입을 열 수 없다고 했는데, 형사가 두 달 쯤 걸려 친절히 대해주니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기 집 뒷뜰에 시체가 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남자 친구를 정말 사랑하니 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고 울먹거렸다.

그 뒷뜰에서 발굴한 시체를 무검하고 사인을 밝힌 후, 에리자베스의 남자 친구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형무소에 갇혔다. 그에게 범죄를 부탁했던 자들도 착착 잡히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와 연관된 케이스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녀의 밀고자 경찰과 검찰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에리자베스는 점점 쇠약해 지지만 했다. 뒷뜰에 있던 시체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죄의식, 두려움, 사랑, 후회 등 여러가지 갈등으로 찼다. 한밤중에 케리 형사를 불러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케리 형사가 그녀의 집에 찾아와 도움을 주려고 애써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여러가지 증세들이 계속 나타났다.

거의 일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에리자베스는 자기 집에서 4km. 쯤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은 고개 밑의 둥그런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 고개 바로 밑엔 길도 없었으니 그녀가 그 위에서 뛰어 내린 듯 했다. 사인은 익사였다. 의상은 없었고 조직에선 소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다. 그녀의 집을

조사하니, 방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책상위에 그녀와 남자 친구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뒤집어엮어 있었다. 유서도 없었다. 신기하게도 쓰레기통에서 그녀의 밀기척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이 오랫동안 그녀의 죽음을 꼼꼼히 수사한 결과 자살로 결정하였다. 식당에서 남자 하나를 잘못 만난 후, 에리자베스의 인생은 지옥을 향한 급행열차와도 같이 달려갔다.

에리자베스의 어머니가 경찰을 고소하여, 경찰이 딸의 죽음을 야기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의 내부 조사도 의뢰했다. 몇 달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고 청문회도 열렸지만 결국 경찰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쯤되니 이번에는 에리자베스의 어머니가 주장하기를, 딸의 시체가 발견된 날 오후 3시 쯤, 자기가 케리 형사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법의관실에 같이 가서 딸의 시체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그 시간에는 법의관실이 잠겨 있다고 하면서 자기 청을 거절했다고 했다. 물론 그때가 법의관실이 문을 닫는 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케리 형사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기를, 그가 그 전화를 받았을때 자기는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그가 그 일을 끝마칠 때는 법의관실이 닫혔을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경찰 기록이 청문회에도 제출되었다.

이제 케리 형사님과 내가 은퇴한지도 한참인데, 우리가 서로 가끔 만나면 옛 친구처럼 반가워 한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Forensic Pathology in Crimes of Violence,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44:2 (No. 10), 1975
2. Yong-Myun Rho: Murder of Suicide, Carlton Press Corp. 1996.

글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들에서 '작가의 창작마비'가 있다면 음악가들 사이에는 '작곡가의 창작마비(Composer's Block)'이란 현상이 있다. 그 원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지아코모 로시니(Gioachomo Rossini, 1792-1868)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는 아드리아 해에 연한 작은 항구 페자로에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가난한 트럼펫 주자로 여러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했으며 어머니는 2류 성악가였다. 따라서 로시니는 어린 시절을 전부 극장에서 소일을 하며 자랐다.

그는 14살에 볼로냐에 있는 음악학교에 입학한 후 첫 오페라를 작곡했다. 15세에는 바이올린, 혼, 합시코드 등 다치는 대로 연주했으며 공중 앞에서나 극장에서 노래를 불러 돈을 벌었다. 그러나 번성기가 되어 노래를 할 수 없게되자 그는 반주자로 또 지휘자로 활약했다. 그 무렵 그는 조세프 하이든이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새로운 기교를 사용하여 아름답고 품성한 음악을 다량으로 배출한 독일 작곡계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당시 유행을 타던 오페라 부파(Comic Opera, 희가극)를 끊임없이 작곡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과거에서 계속해 내려오던 희가극의 전통을 바꿔나갔다. 그는 멜로디를 중시했기 때문에 로시니아말로 골게 발성하는 이탈리아의 창법 벨 칸토(bel canto)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앙상블을 중요시했으며 전에 익숙지 않은 리듬을 사용했다. 또 오케스트라의 비중을 높여 이전까지 오케스트라가 독창자의 반주나 하단 역할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독창자 위주의 음악형식에서 솔로리스트를 전체 음악의 일부로 자리를 잡게 했다. 그의 명성은 밀라노의 라 스칼라 좌에까지 미쳐 많은 작품들을 의뢰 받았다. 당시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도 유명한 곡은 [알제리아의 이

탈리아 여인](1813)이다. 마침내 그의 음악은 이탈리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이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세빌리아의 이발사](1811), 라 세네렌틀라 (신데렐라, 1817) 등이 그 당시 발표된 작품이다.

그는 1823년 베니스에 가서 [세미라미데]를 발표했지만 청중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생활을 즐겼다. 오페라 창작을 중단한 이후 작곡한 작품이란 아주 드물게 손을 댄 종교 곡 [스타바트 마터] (Stabat Mater, 1832년)와 [작은 미사곡] (Petite messe solennelle, 1864) 뿐이다.

그 말던 오페라 작곡 재능은 어디 갔을까? 특히 음악 속에서나 음악과 음악 사이에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그 즐겁고 가벼운 창작 능력은 어떻게 되

어 있던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향해 한 목소리로 부르는 합창곡 "가라, 나의 상념이여, 황금의 날개를 타고"는 독립을 동경하던 이탈리아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고 말년에는 시골의 농부로 살던 그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

그가 밀라노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 모인 수만 명의 애도객들은 누가 미리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합창했다.

그는 생전에 28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다작인 셈이다. 그런데 1871년 스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한 [아이디다]가 카이로에서 연주된 다음 그는 오페라 작곡을 중단했다. 베르디 자신은 초연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골에 칩거하면서 고전소설을 읽으며 고독한 가운데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무려 16년이 지난 1887년에 셰익스피어 원작인 [오텔로]를 내놓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후기 작품에서 베르디는 오페라에서 교향곡적 요소를 점차 강조했다. 그는 브람스 교향곡들을 사랑해서 그 악보를 항상 침대 머리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그 무렵 리하르트 바그너가 등장했는데 바그너는 브람스와 앙숙이었다.

베르디가 보여준 16년 간에 걸친 '작곡가의 창작마비'는 브람스와 바그너 음악사이의 갈등에 기인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오랫동안 베르디는 바그너 음악의 대항자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한편 16년 간의 공백은 베르디가 [아이디다]를 마지막으로 창작 생활에서 은퇴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을 너무 좋아하다가 아리고 보이토 (그 자신도 당시 유명한 극본가면서 작곡가였음)의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페라에 다시 손을 대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작곡가의 창작마비



정유석(64)

무지한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작곡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다음 고국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갔다. 그는 1823년 11월에 파리에 도착했다. 당시 파리는 세계의 중심지였다. 한편 파리는 그를 열성적으로 환영했고 파리의 아카데미는 이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를 아주 정중하게 대접했다. 그는 파리에서도 오페라 작곡을 계속했지만 작곡 성향은 조금씩 변화되었다. 차갑고 기교에만 익숙한 콜로라추라의 노래를 포기하고 진정하고 정열적인 아리아로 대체했으며 합창음악의 비율을 크게 높였다. 1829년에 발표한 그의 마지막 오페라인 [기욤 텔] (Guillome Tell, 윌리엄 텔)은 독일 작가 실러의 시를 바탕으로 했는데 내셔널리즘과 자유를 추구하는 고상한 주제를 다루었다. 파리 시민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기욤 텔]은 그의 마지막 오페라가 되었다. 그동안 20년 간 40편 이상의 오페라를 작곡했으나 37세의 젊은 나이로 오페라 창작에서 영원히 손을 떼고 말았다.

그는 76세까지 살았는데 특히 음식에 탐욕하며 미구 먹고 마시는 화려한

있을까? 그가 오페라에서 손을 떼고도 아무런 후회나 집념 없이 수십 년을 지속해 살아간 것은 게으르고 방탕한 성격으로 인해 창작력이 소진된 데다가 1830년 이후 새로운 음악 사조를 따르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이 있다.

한편 그는 미식가에 미주가로 알려져 있다. 오페라에서 손을 댄 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져 창작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밖에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오페라 작곡가로 셋별같이 떠오르던 지아코모 메이어베르에게 질투를 느낀 결과로 창작을 단념하고 말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어 있다.

지우제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는 자타가 공인하는 오페라 작곡의 제왕이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29세에 3개월만에 완성시킨 [나부코]를 발표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이루었으며 오페라 작가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얻었다. 나부코는 성경에 나오는 네브카드네צר 왕이다.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압제 하에 있었다.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바빌론에 억류되

토스카니의 겨울

수필가: 임 해 기
(입준형 73 동문 부인)

겨울에 토스카니를 여행할 계획은 애당초 없었다. 뉴욕보다는 덜 춥겠지만 웅크리고 떨면서 썰렁한 거리를 기웃거리는 투어는 내키지 않는다. 그래도 공식적인 겨울의 와중에 그곳을 여행하고 왔다. 마침 동계 올림픽 기간중이라 중간 기착지의 검사원에게서 올림픽에 가는다는 질문을 들으며 이태리로 향했지만 내가 여행한 곳은 주로 토스카니 지방의 도시들이다. 지난 해 11월 중순쯤이던가 "뉴욕에서 토스카니 한 입"(A bite of Tuscany in the Big Apple)이라는 타이틀로 토스카니 관광 유치 캠페인이 뉴욕에서 열렸었다. 그 지역 투어리즘 위원회에서 준비한 캠페인에는 그 고장에서 제작하는 가구 및 인테리어 홍보, 각 종 와인의 시음(試飲)과 올리브 오일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명소를 소개하는 워크샵 등이 열흘 이상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토스카니에서 촬영된 최근의 영화 두 편을 상영한 후 영화 제작자가 연사로 나와 그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건축가와 아트 갤러리의 설명회, 그리고 토스칸 산지(産地)의 대리석과 모자이크, 청동과 도예 제품을 소개하는 모임도 있었다. 나는 포도주를 곁들여 맛있는 토스카니 음식을 소개한다는 파티를 끌어서 찾아갔다. 록펠러 플라자의 레인보우 홀에서 열린다는 것이 구미에 당겼지만 큰 기대는 없었고 잠깐 구경이나 할 심사였다. 그런데 푸짐하고 다양한 음식과 온갖 종류의 포도주 서비스에 한껏 고무(鼓舞)되었다. 언론과 무역과 여행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참석인구가 양껏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음식을 채워놓는 인심과 가짓수가 많은 것이 놀라웠다. 양념한 참치 회를 등그렇게 빔은 후 치즈를 올려놓은 음식이 재래의 토스카니 스타일인지 퓨전인지 궁금해하던 기억도 있다. 어쨌든 그 많은 종류의 오드블을 시식하며 아름다운 토스칸 마을들을 보여주는 책자를 받아본 후 그 곳에 가고픈 마음이 조용히 싹 틔운 건 사실이다. 토스칸 관광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개한 유치 유혹에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이 동한 것이다. 마침 그곳을 여행하는 어느 단체의 안내가 눈에 들어왔고 따라 나설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추억으로 남아있으니 좋은 감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지난날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꽃피는 화사한 계절도 아니고 모노 톤의 단조로움으로 펼쳐지는 원색 부재(不在)의 경관이건만 이를 바라보는 소감과 느낌이 예전과 판이했다. 성숙해진 감상법과 감동할 자세가 충분히 준비된 여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태리 땅의 중심지역을 차지하는 토스카니 지방 여행은 현시대의 시간 속에서 구시대의 시간을 확연히 되짚어 보는 여정이기도하다. 시대를 거치며 문화의 중심을 차지해 오던 지역적 요건과 맞물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옛 시대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과거가 역사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현존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세계사 시간이나 들었던 수세기전의 영장 한니발의 이름이 일상의 날씨 대화에서도 거침없이 등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예를 들면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가며 이 고개를 지나치던 날의 그 짙은 안개가 오늘의 안개와 흡사할 것이라는 등. 현재 누군가 살고 있는 빌라의 발코니를



가리키며 자신이 그리는 벽화를 더 잘 보려다가 뒷발을 잘못 짚어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소개하는 건 뉴스가 되지만 그것이 1523년 시노렐리가 당한 죽음이 라면 경이로물 수밖에 없다.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몇 달 전의 불운한 사고를 전하듯 전설과 현실을 초월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은 그 빌라가 그곳에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리라. 토스카니의 마을에 집을 장만한 작가 후란시스 메이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주소만 대면 자신의 집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고 한다. 하나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 백년간 그곳에 있었던 집을 모를 리 없다는 걸 차차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당신 집은 지은 지 수백 년 밖에 되지 않았어. 내 집은 일천 년이 넘었지."하는 언급을 듣고서야 수 백 년의 역사가 동네 표준으로는 행세하는 나이 측에까지 못함을 눈치챘다는 것이다. 이태리의 모든 마을이 그렇겠지만 토스칸 언덕의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대물림하며 세대(代)의 조상들이 어찌 살았는가 생생히 전하고 있다. 나무를 마구 베던 빈궁한 시절도 알고 말라리아와 흑사병으로 황폐하게 유린되었던 14세기를 회고하고 영국에서 토스카니 물품을 미친듯이 수입해 가던 중세기와 르네상스의 문화가 꽃피던 시절의 변모는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일상에 오르는 동네의 과거사들이다. 손에 손을 거치며 다져지고 전해져 수십 세기가 경중 다가오는 역사의 회고는 그래서 가능하게 된다.

겨울의 토스카니는 웅산하고 추웠다. 뻗속으로 습기찬 바람이 스며든다는 추위는 알고 떠났다. 미국 작가 사울 벨로우의 토스카니 추억담에는 떨면서 지던 이야기가 실감나게 적혀 있다. 침대 밑

에 60속 정도의 전구 말이 달렸고 이것을 거쳐 매트레스 밑 스프링에 희미한 열이 통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는 온열 시스템 이야기도 읽었다. 그러나 그 추위도 고마운 수프와 치즈와 와인 덕분에 결코 괴롭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한다. 나의 겨울 여행은 우아한 호텔의 푸근한 침대 속에서 보냈기에 매운 추위 맛은 보지 않았다. 허나 그 명성 높은 토스칸의 태양 빛도 실감하지 못했다. 백금처럼 빛난다는 말로 묘사되는 눈부신 토스칸의 햇살이 르네상스의 탄생에 한 몫 했을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는데 하늘에 드리운 검은 구름과 우울한 날씨를 로마로 돌아가서야 해를 볼 수 있었다.



이제 슬하게 박물관을 돌며 다니던 순간들이 심장 한 곳에 토스칸 추억으로 변모되어 서서히 자리를 잡는다. 나무가 없는 도시 풍경을 조잡하고 추하게 여겨 왔는데 도시마다 한 그루의 나무도 설 수 없게 포장된 거리는 아무리 걸어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출지어 늘어선 고색 창연한 건물사이엔 풀잎 하나 없었고 테라스에 꽃 한 송이 놓이지 않은 겨울이건만 목직한 돌 건물의 문치 있는 풍경은 화폭을 펼친 듯하다. 대부분의 성당 실내장식은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어우러져 무거움을 가시게 하는 듯 했다. 토스카니의 자랑 거리는 와인과 올리브 오일과 치즈와 성과 요새와 교회당이다. 포도주에 대한 자랑과 애정은 그중 특별하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으려고 층층이 내려간 지하 저장소를 만들어 수 천명이 줄을 지어 포도주 병을 패스해서 감추던 영화의 무대도 바로 이곳이다. 브루넬로(Brunello

de Montalcino) 와인의 명성은 그 역사 때문에 더욱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태리의 도시는 아이디어의 본체로 일컬어진다는데 장엄하게 펼쳐진 언덕을 돌면 대지(臺地)에 높이 솟은 교회당과 타워를 중심으로 둘러선 석조건물이 광장과 센터를 이룬다. 아직도 중세의 그은 골목이 보이고 좁은 골목길마다 발길과 눈길을 끄는 역사와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이어지는데 아무데나 카메라를 대고 셔터를 눌러도 완벽한 구도의 그럴듯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마을 어귀에는 한 겨울에도 은 초록 빛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 잎이 푸짐하게 들어서 있다. 구름마다 삐죽이 서있는 검푸른 사이프러스 나무는 또 어떠한가. 언덕 위의 사이프러스는 단조로운 풍경에 강한 액센트를 주어 한 쪽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감탄 부호(!)처럼 늘어 서있다. 가끔씩 보이는 높고 우람한 체형의 우산술(松) 역시 웅만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초연히 품을 잡고 있었다. 그 토스칸의 언덕이 다시금 눈앞에 선다. 지글지글 소리만 요란하다 한 방울씩 드물게 내뿜는 커피 액을 감질나게 모아 한 모금에 훌쩍 끝나던 에스프레소의 쓴맛도 이제야 이해할 듯하다.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맛보고 또 맛볼수록 진수를 알게되는 고장이 이태리가 아닌가 싶다. 미국 작가 딜란 토마스는 이태리에 머물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었다고 한다. "나는 이탈리아와의 대화를 즐긴다. 조금 격렬할 것을 예상하고 약간의 간격이 필요하지만 말야." 이번 겨울 여행은 항상 모든 것이 즐겁고 신나는 친구와 동행을 했고 그 친구야말로 딜란 토마스가 일컫는 이태리인 기질도 지니고 있어서 더 많은 추억이 남게 되었다.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으면 예고없이 물이나 포도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대형 사고의 피해가 모두 우측 사람에게 돌아가 나는 끄떡없이 지낸 것도 행운이려나.

독백(친구여!)

정 태(62)

친구여!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네 그러! 하니 황혼에 드는 나이에선인지 홀로하는 시간들이 예전같지 않게 자주하고보니 그것의 정서가 오고 간 일들로 해서 더 명감해짐을 어찌할 수 없소이다.

한가하기에 이 책 저 책 뒤적이다 이태백의 '월하독주'에 접하게 되어 열근한 흥취에 흠뻑이며 그 뜻을 음미하다 느낀 바를 적어보이다. 꽃 그늘에서 술잔을 들고 친구도 없이 혼자서 마시노라 잔을 들고 명월을 맞으니 그림자까지 세 사람되는구나

이에 또 선조때의 유명했던 김육의 시를 더해보오

자네 집에 술이 익거든 부디 날 부르소서 / 내 집에 꽃이 피거든 나도 자네 청하음세 / 백년 덧시름 잊을 일 의논코저 하노라.

친구가 뭐길래!! 이태백이가 친구같이 했다면 명월 맞아 연못에 비친 달을 따려고 뛰어

들지는 않았으리... 그랬더라면 절묘의 명시 몇 수 우리 후세가 더 읊어보며 즐겼을텐데... 그러도 많았다든 친구(?) 들 다 어데있었기에...

내 집에 꽃이 피어나면 친구 청하겠다 약속하고 친구더러 술 담구어 익거든 날 불러주길 바라는 것이 친구일게 틀림없소이다.

나 조금 잃고 자네 또한 조금은 잃어가며 서로 서로가 되어 마음에 두어가며 말의이다. 간혹 석양에 먹구름이 바람에 날려드니 명월은 오간데 없고 하니 그림자마저 같이 아니하니 나 홀로인가 보이다.

아무 거침없이 홀로이 왔다 홀로이 가게 마련이었소만...

여보게나! 석양에 드는 내 집에 꽃이 피어나본데 내 참 술 담구어 익혀 한 병 정회 준비하여 꼭 기다림세! 우리 같이하여 거나히 취해가며 망년의 덧시름 잊어버리기로 합세 그러. 어찌 술맛 입가시며 한번 멋지게 취해봅시다!

안 그러려나?! 친구여!

우리시대의 文衡

이 원 택(71)

나는 인생살이의 도피로 주로 책을 읽는다. 책중에서도 주로 흥미위주의 소설을 소설중에서도 장편 대하소설을 그것도 요즈음은 다시한번 읽어오는 것이 취미이다. 젊었을때 상식을 넓히려 세계명작이나 고전도 읽어오곤 했으나 나이가 들면서는 한국문학 그중에서도 내가 직,간접으로 체험한 소재로 쓴 글들이 읽기가 쉽다.

이와같은 울타리 내에서도 누가 한국의 최고 작가인가는 전적으로 주관적이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평가일수 밖에 없는데 우선 생각나는대로 6명을 추려 보았다.

대충 연령순으로 '토지'의 박경리, '객주'의 김주영, '태백산맥'의 조정래, '장길산'의 황석영, '왕도의 비밀'의 최인호 그리고 '영웅시대'의 이문열이 그들이다. 물론 상기한 작품들이 각 작가의 대표작이 아닐수도 있지만 이 글의 취지가 작품을 논하기 보다는 작가들의 특성을 논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위에 열거한 6명 이외에도 지난 30년간 한국문단을 풍미한 작가는 많이 있겠으나 필자의 견문이 좁은 관계상 다 제쳐두고 또 박경리와 최인호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김주영의 객주를 첫번 읽고 나서 나는 김주영이를 이조말기의 서민들의 밑바닥 삶을 그린 서사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작품을 두번째 읽고 나서는 시대를 떠나서 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못 인간들의 애증을 읊은 서정시인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객주' 제3부 상도편 상전에 나오는 우전마당에서 체구가 우람한 찌러기와 체구가 아급받게 생긴 압내난 암소가 한바탕 벌이는 성의 향연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삼만사를 다 읽어버리고 오직 한가지 행동을 위해서 몰입하는 과정과 동물과 다름없는 인간의 본능을 황소와 암소로 대리 연출시킨 catharsis의 극치를 맛볼 수 있게 한다. 바로 그때였다. 당초부터 소 두필이 버둥거리고 있는 코 밑에서 턱을 괴고 앉았던 암가발이에 얼굴뻥이인 사내가 미투리 총을 쏘어 매더니 햄리를 벗어 부치고 발짝 일어났다. 암소 입자임이 분명했다. 사내는 달려가서 찌러기의 양물을 잡아서 겨냥하는 암컷의 음문 에다 휘어 넣으려 하였다. 그침에 찌러기의 양문에서 나온 정수를 한 암준이 나 되게 낮짝에다 뒤집어 쓰고 말았다. 차 부소의 한 잔등이 한번 크게 짝이는 것 같더니 질탕하게 뺨질들락하는 소리가 썩은 바자에 소나비 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진흙 바탕에 단나귀 발 빠지는 소리 같기도 하였고 해묵은 서당에 방망이질 하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제 힘에 겨워 꼬꾸라지거나 않을 까 싶던 암소는 되레 구경꾼들에게 오란듯이 허연 이를 드러내고 벌름 웃었다.

태백산맥의 조정래는 그후 '아리랑'과 '한강'의 대하소설을 써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아리랑)로 부터 아버지 세대(태백산맥)과 우리 세대(한강)의 삼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한국 근대사를 여러 사람의 증언과 끈질긴 현지답사 등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는데 이런 점으로 볼때 "우리 시대의 위대한 記子"는 단연 조정래의 몫이다.

조정래 문학의 대중을 이루는 주제는 이념의 문제보다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극한 투쟁에서 오는 살벌한

생존경쟁인데 (아리랑의 민족주의적 채색을 포함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배고픔에 대한 고통을 여러 군데에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태백산맥 제4부 전쟁과 분단중, 각도 당 동계 대공세에 나오는 쫓기는 빨치산 손승호는 옛날새끼 아침밥을 굶기 시작하고 아흐레째 소금도 없는 눈덩이를 뭉쳐 먹으면서 비상선을 찾아가다가 '문득' 그의 눈이 한곳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길이 머문 눈위에는 찢어진 건빵봉투와 건빵 두 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건빵을 향해 허겁지겁 내달았다. 그의 눈에는 건빵 하나가 목침덩이 만큼 크게 보이고 있었다. 그는 넘어지며 건빵 두 개를 덮쳤다. 눈과 함께 건빵을 잡는 그의 손이 짹짹 입을 움켜쥐었다. 그는 눈위에 무릎을 꿇은채 건빵을 씹어대기 시작했다. 그의 삐딱마른 얼굴에는 더없이 흐뭇한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또 태백산맥인지 이병주의 '지리산'인지 잘 기억이 않으나 그렇다고 17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다시 읽을 수도 없고 역시 빨치산 투쟁을 하다가 몇일씩 굶은 패잔병들이 서너명의 자기동료들이 식사를 하다가 국방군한테 몰살당한 곳을 목격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띈것은 흩어지려던 뱀비며 창고에 남아있는 밥 찌꺼기 들이고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 졸지에 총알받이가 된 동료들의 입속에 남아있는 밥알까지 남기지 않고 꺼내 먹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그렇게까지 배를 곯아 본적이 없어서 class를 따질수는 없으나 다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조정래의 대하소설 3개 모두가 인간의 극한 상황을 찢어발려왔다는 점에서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세대들이 겪었던 인간 이하의 삶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조정래는 우리 세대 최고의 고발문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름에서조차 (예명이긴 하지만) 글냄새가 흠뻑 풍기는 이문열은 소설가라기 보다는 철학자로 부르는게 더 어울릴만큼 글 속에서 작가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걸쳐 주장을 펴고 있다 어떤 때는 작가가 독자에게 일반적으로 감요하고 있다는 거부감이 들 정도인데 그의 자전적인 소설 '영웅시대'의 제2장 끝에 쫓 나오는 이동영(이문열의 부친역)과 그에게는 공산주의 지도 교수쯤 되는 박영창과의 대화를 보면 이동영이 공산주의를 택한 것은 살아 남기 위한 교육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 계급(지주)의 몰락을 자명한 것으로 알려주었지만 우리의 적(부르조아로 자라갈 소시민)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우리들의 적의 적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롤레타리아조 어차피 살아 남기 위한 선택을 할 바에야 적으로 어떻게 변신하여 또 새로운 적에게 타도 당하느니보다, 역사의 단계 하나는 비약해 버리는 것 즉 적의 적이 되어 존재를 긍정받는 편이 더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이문열씨는 거의 독학이지만 방대한 양의 독서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의 한문 실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 항상 무게있는 사실을 쓰고 있는 소위 우리 시대의 위대한 문장가라고나 할까(?).

다음으로 20세 이전에 쓴 '입석부근'

으로 나로 하여금 우상의 대상이 되었던 황석영은 파란만장의 생애 속에서도 '장길산', '어둠의 자식' 같은 대하소설과 비교적 근래에 한국여성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model 소설 '심청'을 발간하였다. 이문열이 특심의 작가라면 황석영은 기지의 작가라고 본다. 이 글에 나오는 네 명 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민중문학에다 realism에 뿌리를 둔 작가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황석영은 원천적인 체험(본인의 선택이라는 사치도 있지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황석영은 감성이나 지성 또는 인간의 본성에도 호소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싸나이'라는 말로 문학계의 '완짜'인 것이다.

심청의 6장 용머리 위의 관음에 나오는 따거(대빵)와 청(기생)의 수작을 보기로 하자.

노래가 끝나자 따거 통싼이 손을 들어 청이와 유메이를 불렀다 "너희들 이리워서 내 술잔을 받아라. 중략-" 기울었던 주전자를 내려 놓으면서 통싼은 청이에게 물었다. "너는 본뜻한테-" 청이는 죽엽주를 단숨에 마시고 나서 고개를 들어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제가 지롱에 처음 오던날 어르신을 하룻밤 모신적이 있습니다." "허 그랬던가?" 통싼이 당황하여 그렇게 대꾸하는데 관복차림의 동지가 끼어든다. "볼동산의 나비가 날아 앉았던 꽃을 모두 기억할 수야 있나?"

모르긴 몰라도 냉엄한 현실에서 정 보다는 의리에 더 끌리는 황석영은 실존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의

리보다는 정에 더 중점을 둔 이문열은 남만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두 사람의 성격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 (직업적인 평론가와 아마추어 평론가의 차이점)

간단히 이상의 네 작가에 대한 문체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면 황석영의 문체는 깔끔하여 초량초량하고 이문열은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듣는듯 강당이 울려 퍼지는 감이 있고 조정래는 그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다가 간간히 튀어나오는 욕지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겠으나 역시 어휘의 선택이나 우리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글은 김주영이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본다.

비교적 과작인 편인 김주영이지만 그는 '객주' 하나만 갖고서도 문학박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사장되어 가고 있던 이조말기의 토속어를 발굴해낸 그의 공로는 어느 국문학자 못지 않으며 내가 알기로는 현대한국 문학사에서 탐구하는 소설가의 효시가 김주영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 후로 전업작가라는 말이 생겨서 작가들도 교수나 의사와 같은 전문 지식인으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편집, 출판 판매하는 전문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의 이조참판이 되어서 왕한테 우리 문단의 문형을 추천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다.

- 正一品 弘文館 領事에는 김주영
- 從一品 春秋館 知事에는 조정래
- 從一品 永文院 提調에는 황석영
- 正二品 藝文館 大提學에는 이문열

함춘원

고 애 자(이운순 58 동문 부인)

시계탑 지난해에 게재된 오태희 선생의 글 '함춘원의 추억'에서 함춘원에 대한 기사를 기대하였으나 64년도 소식이었다. 64년도 출판물을 한 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4년도에도 인재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올해는 대한의원 창립(서울의대 초대 창립학교명)에 대한 기사를 쓰고픈 충동을 느꼈습니다.

원남동에서 비스듬이 올라가면 대학 병원 시계탑 건물을 끼고 뒤로 돌아 내려가면 소나무가 울창한 산림에, 오솔길로 내려가면 음악대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계속해서 북향으로 내려가면 의대건물의 정문이 되고 동승동이 나오며, 왼쪽으로 오분 정도 걸어가면 해화동 로타리가 나오고 또 서쪽으로 몇분 올라가면 명륜동인데 그곳에서 필자는 음악대학을 다녔다. 그때 음대와 의대생들은 교수회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은 국수 밖에 없었지만 아주 맛이 있었다. 아마 의대생들과 어울려 먹어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당시 의대에서는 음악대학을 '판파라패'라고 쫓아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 돌을 주어다 담을 쌓고 우리를 팔쇄해 결국 을지로 6가 약대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실상 그들은 음대 여학생들은 속으로는 좋아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울며 겨자먹기로 쫓아냈다. 사나운 시어머니 때문에 순진한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보낸격이다. 그 예를 들어 증명하자면, 감상진(59)동문은 4년동안 음대생을 따라 다녀 결국 성공했다. 그외에도 여러명을 들수있다.

피꼬리같은 노래소리, 아름다운 함창소리, 연습실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와

여러 악기들의 화음소리 이 얼마나 훌륭한 함춘원의 조화였던가!

그후 그 자리에는 약학대학과 간호대학이 들어와 그곳은 완전히 살벌한 얼음벌판으로 탈바꿈을 했다.

교수회관(함춘원)은 서울의 명물의 하나로 일반문화, 학술대회장, 또 결혼식, 출판기념회 등 서울의 유일한 곳이었다. 이곳이 한때는 (함춘원) 고궁 속에 자리잡아 오래된 소나무로 가득차고 봄에는 개나리가 만발하는 아늑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함춘원은 오래된 궁전 경모궁으로 점조대왕이 사도세자를 삼기기 위해 건설한것인데 즉 회춘원은 일본 합병때 일본인들이 개칭했다.

함춘원은 이태조때 중국의 삼림원을 본따서 지었는데 역대 국왕이 낮에는 꽃, 밤에는 달을 즐기는 곳이었다. 연산군때는 술과 고기로 음탕한 정원을 만들었고, 영조때는 원내에 묘를 세워 사도세자의 제사를 지냈다.

점조때는 다시 고쳐서 정모궁이라고 하고 창경원에서 통하는 문으로 나와 왕이 매달 성모했다고 한다.

6.25 사변 당시 이곳은 폭격으로 아깝게도 전소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휴전후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 장교구락부 conset(임시건물)을 지었는데 미군들이 떠나후 학생회관이라고 하다가 교수회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바둑, 장기, 담구 등 오락장을 만들어 곁에는 간이식당을 차려 음대와 의대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으로 변모되었다.

함춘원은 미주서울의대 부인들의 모임인 '함춘회'의 이름을 통해서 이곳 미국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



ART EXHIBITION

2006년도 제23회 하계학술대회 기간중 Art Exhibition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화, 서예, 사진, 조각, 공예품, Quilt 등을 출품하실 분들은 준비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많은 출품을 기대합니다.

Mrs. 박희명 (845) 294-7406 Tel
Mrs. 최준희 (201) 969-8480 Tel
(201) 638-4600 Cell

Atlantic City, New Jersey

For more information on planning your trip:
www.atlanticcitynj.com
- Popular attractions at the Atlantic City Boardwalk:

- Atlantic City Art Center on garden Pier
- Atlantic City Boardwalk Arcade
- Atlantic City Historical Museum
- Central Pier Arcade & Speedway
- Chicken Bone Beach Historical Foundation, Inc.
- New Jersey Korean war Memorial
- Ripley's Believe It Or Not! Museum
- Royal Rolling Chairs
- Steel Pier
- WOW VR Live

농담골목

어느 정치인이 집에 돌아와 자기 처에게 말하기를 "나 오늘 선출되었어." 라고 했습니다. 처가 "거짓말이 아니지요?"라고 하니, 그가 "이것은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면)

정치인이 오래간만에 양로원을 찾아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방 구석에 앉아 있던 노인 한 사람이 그에게 물기를 "곧 선거가 있는가 보지요?"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좀 당황해 하더니 "내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면)

"기저귀와 정치가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면)

Politics의 어원: 라틴어로 Poli는 many, tics는 blood-sucking creatures. (면)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환자에게
의사: 당신은 이제 당신이 다이어나 공주라는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환자: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치료비 청구서는 찰스 황태자에게 보내주시시오. (이덕승)

정신과 병실에서 환자가 혼자 편지를 쓰고 있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궁금해서 물었다.
간호사: 지금 누구한테 쓰는 편지요?
환자: 나한테 쓰는 거예요.
간호사: 그래요, 내용이 뭔데요?
환자: 에이 바보같은 질문을 하시네, 아직 받아 보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아. (이덕승)

믿으면 바보 / 뻔한 거짓말

직장인: 내일 당장 때려 치워야지!
사장: 우리 회사는 바로 사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중국집주인: 방금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 할겁니다.
수석합격자: 잠은 충분히 자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사: 내가 지금까지 본 신부중에서 제일 예쁜데요.
선생님: 이걸 꼭 시험에 나온다.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다.
시장상인: 이거 밀치고 파는 겁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빨리 죽어야지.
노처녀: 나 시집 안간다니깐요.
정치인: 일전 한훈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등생: 이번 시험 완전히 망쳤어!
남녀 두 연예인: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입니다.
A/S man: 이런 고장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단골지각생: 차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습니다.
수능출제자: 교과서 중심으로 쉽게 출제 했습니다.
치과의사: 아프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미인대회에서: 저 보다 언니가 되어야지요.
엄마, 아빠: 내가 학교 다닐때 전교 1등만 했다. - (허선행 제공)

편집실 동정

원고들이 잘 타지되어 있어 교정할 데가 적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인쇄소 황사장에게 감사한다. (면)

이번 회장은 시계탑 편집위원 모임마다 참석하여 위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때 동창 저자들의 자서 서명 시간을 갖고저 하는 것은 반기운 일이다. 많이 참석하기를.... (김)

3개월에 한번씩 만나는 편집모임이 3주에 한번씩 열리는 것 같이 세월은 더 빨리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편집모임때 마다 참석해온 현 회장 최준희 동문의 열성에 존경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모두의 대변지의 질이 계속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善)

섬머 콘벤션이 코 앞에 다가왔다. 풍성한 Scientific & non-scientific program이 이번 시계탑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콘벤션에 처음으로 선보일 컴퓨터 강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경탁(65)선배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이 모여 알찬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錫)

이메일로 '거북이'란 제목의 원고를 보내주신 동문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 이번에 게재치 못했습니다. 편집자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면 다음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낙중 동문 등 몇 동문의 글은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실기로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편집자-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